2019.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4회 학술세미나

06. 14. _
15-18 hour _

2019년 6월 14일 15시~18시 _ 일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_ 장소

(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_ 주관

국가보훈처, (사)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_ 후원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제4회 학술세미나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 시기 만주독립군의 전투 환경

– 일 시 : 2019년 6월 14일 15시~18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관 : (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 후 원 : 국가보훈처, (사)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 좌 장 :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 1920년 동만주 지역 독립군의 지형과 독립전쟁론
– 대한북로독군부를 중심으로
발표 : 신주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토론 : 심철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 부대의 무기 도입 과정
발표 : 신효승 (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시베리아 내전과 독립군
발표 : 윤상원 (전북대학교)
토론 : 홍웅호 (동국대학교)

○ 최운산의 삶과 독립운동
발표 : 이계형 (국민대학교)
토론 : 심철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최운산(만익, 문무, 고려, 명길, 풍, 빈, 복) 장군 연보

1885. 11.17 :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에서 출생. 아명 명길明吉.

1894. 연길 국자가 서당에서 한학 修學, 중국어에 능통, 전통무술 연마.

1907. 김성녀 여사와 혼인

1908. 중국 동삼성 지역 지배 세력인 장작림 군에서 군사훈련을 책임진 간부로 일함. 일명 최풍으로 불림.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을 기약하며 최진동(최희), 최운산(최풍), 최치흥(최흥) 3형제가 모두 장작림 군대의 간부로 활약.
동삼성 지역 地籍 정리할 때 최운산 장군이 **왕청현 총대總代(總攤)**로 활약하면서 10여개 지방(1지방은 우리나라의 郡 크기의 토지 단위) 개발 경작하여 **봉오동, 도문, 석현, 서대파, 십리평, 양수천자**를 비롯해 거대한 토지를 소유함

1910. 최운산 一家 4代 봉오동으로 이주.
도시인 연길을 떠나 봉오동에서 동포들과 함께 신한촌 건설.

1912. 자위단自衛團 창설.
동포들을 비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군을 사임하고 장작림 군대에서 100여 명의 군인을 모집해 나옴.
봉오동에서 최운산의 사병부대(조선사람을 보호하는 자위대)가 시작됨
콩기름공장 · 국수공장 · 제주공장 · 성냥공장 · 비누공장을 비롯 다양한 생필품기업 운영,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여 러시아군의 식량으로 곡물 및 소 수출하는 축산무역 등으로 북간도 제1의 거부가 됨.

1915. 독립군부대 〈도독부〉 창설 및 봉오동 독립군기지 조성.
봉오동 산중턱을 벌목 개간하여 연병장을 건설하고 3개 동의 대형 막

사를 건축하여 독립군들을 수용했다. 본부인 저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토성을 축조하고 그 토성의 네 귀퉁이에 각각 대포를 설치함.
봉오동을 본격적 무장독립군기지로 완성하고 봉오동으로 모여든 수백 명의 애국청년들을 정예 무장군인으로 훈련 양성함

1919. 기미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연변 곳곳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남
'왕청현 배초구 3 · 26 독립만세시위' 주도 (일제 경찰 추산 1,500명)
'양수천자 5 · 18 독립만세시위' 주도 (일제 경찰 추산 200명)

1919.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상해 임시정부를 받아들이고 최운산의 사병부대 〈도독부〉가 대한민국 정식 독립군부대 〈대한군무도독부〉로 거듭남.
형님 **최진동 장군을 부장(사령관)**에 추대. 동생 최치흥도 참모로 참여

1919. 최운산 소유지 서대파에 〈대한북로군정서〉 를 창설,
무기 · 식량 · 군복 등 모든 군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을 지원함
북간도의 모든 독립군부대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함

1920. 최운산 소유지 십리평에 〈사관연성소〉 를 창설
기미독립선언 이후 간도로 넘어오는 애국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들을 정예 독립군으로 양성하기 위해 십리평에 단기 사관학교 설립. 십리평에서 가까운 서대파의 북로군정서에 사관학교 운영을 맡김

1월. 석현의 대규모 토지 5만원에 매각
계속 늘어나는 통합부대의 독립군 수천 명을 정예 독립군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석현의 땅을 5만원에 팔아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구입함

3월. 국내진공작전의 일환으로 국경수비대 습격전 전개
정예 무장독립군들을 이끌고 온성군 풍리동, 풍교동, 남양동을 비롯해 수십 군데 경찰서와 헌병대를 습격해 뛰어난 사격술로 戰果를 올림.
당시 50명~200명의 정에 독립군 병사들이 자주 습격전을 벌였음.

5월 17일 독립군 통합부대 〈대한북로독군부〉 창설
〈대한군무도독부〉 ,〈국민회군〉, 북로군정서〉, 〈신민단〉, 〈광복단〉,

〈의군부〉를 비롯한 북간도의 모든 독립군 부대들이 개별 부대명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통합독립군단 〈대한북로독군부〉로 거듭난 배경에 무기, 식량 군복 등 모든 군자금을 최운산이 책임진다는 약조**가 있었음.

6월 7일 봉오동전투 大勝.

〈大韓北路督軍府〉의 참모장을 맡아 사령관인 형님 최진동 府將과 안무, 박영, 홍범도, 김좌진을 비롯한 수천 명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봉오동전투에서 승리**

10월 청산리전투 대승 :

동부전선 나자구전투에서 戰功을 세운후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독립군을 이끌고 연해주로 이동

1921. 자유시참변 당시 휘하부대만 이끌고 피신

자유시에서 휘하 부대원을 제외한 수많은 병사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독립군기지 건설에 주력하여 다시 독립군을 모집하고 정세 분석과 일본군의 동향 파악 등 비밀 첩보활동을 지속함

1924. 새로운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해 삼동지방 토지 구입.

북만주 동녕현에서 땅을 사고, 사관학교 설립함. 군자금 모연활동과 일제 관공서 습격전 등 무장 투쟁을 지속함.

〈대한도독부〉의 독립군 수가 4,119명으로 강력한 독립군세력 유지.(24.1.14동아일보)

1924. 일본경찰서 습격과 군자금을 모연한 불령선인으로 체포, 3년간 獄苦.

출옥 후 이름을 바꾸고 변장하며 무장투쟁을 지속함

1930.~ 도문대안전투 · 안산리전투 · 우수리강전투에서 戰功을 세우는 등 193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무장투쟁에 헌신함

1933. 대전자령전투에서 大勝.

1937. 보천보전투의 배후로 지목되어 獄苦. (실제 관련 없음)

1939. 창씨개명 거부, 독립군 군자금을 조달한 불령선인으로 10개월간 獄苦.

1940년대 중반까지 비밀리에 삼림지대인 대황구에 500여명 규모의 무장독립군 부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함

1945. 7. 5 고문에 의한 신병으로 순국

1977. 건국훈장 대통령포장 추서

1990.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16. 7. 4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창립

제4회 학술세미나 인사말



이사장 윤 경 로

올해 우리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싹트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때 1920년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봉오동전투"는 무장독립군기지 봉오동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토벌군을 격파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기관총과 대포, 장총 등의 신형 무기로 완전 무장한 대규모의 일본의 정규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지금 돌이켜봐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군대는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던 군대였습니다. 봉오동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독립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봉오동에서 수천 명의 독립군이 함께 총을 들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역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봉오동의 승리를 숫자로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향한 긴 여정을 비춰준 횃불이 된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가 한 두 명의 영웅이 이뤄낸 전과로만 설명되면서 치열했던 북간도 지역의 무장 독립전쟁의 역사는 신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하고 진실과 역사의 옷을 입혀야 하겠습니다.

내년인 2020년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100주년입니다. 99년이 지난 지금도 만주와 북간도 무장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독립군 통합군단인 〈대한북로독군부〉의 총사령관인 최진동 장군에 대한 논문도, 사재를 털어 봉오동을 독립군기지로 건설하고 독립군을 훈련 양성했던 최운산 장군에 대한 연구도 전무합니다. 만주의 무장독립운동을 전공한 전문 연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는 핑계조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학계에서 무장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연구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가 "북간도 무장독립군의 무기와 최운산"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당시 일본군의 무기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보유했던 독립군의 무기와 시베리아 내전이 어떻게 만주 독립군의 무장활동과 연계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일찌기 봉오동을 무장독립군기지로 건설하고 북간도의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최운산장군의 역할도 재조명합니다.

봉오동에서 장기간 훈련 양성된 정예부대 〈대한군무도독부〉가 어떻게 통합군단 〈대한북로독군부〉의 중심에서 북간도의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이 학술세미나를 통해 1920년 당시 전투상황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와 논찬을 맡아주신 학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20년 동만주 지역 독립군의 지형과 독립전쟁론 – 대한북로독군부를 중심으로

신 주 백 (독립운동사연구소)

1. 머리말

1920년 시점에 만주, 특히 동만주 지역 민족운동은 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이었다. 흔히 이를 무장투쟁이라고 말한다. 3.1운동의 여파가 상해지역에서 임시정부의 결성으로, 국내의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의 활성화로 나타난 양상과 비견된다고 하겠다.

독립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된 양상은 이 두 가지 여파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동만주지역 독립군은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에 호응하여 움직였고, 여기에 동참한 독립군은 3.1운동 이후 불타올랐던 '애국열'로 급속히 늘어난 무장대원을 토대로 확대 편집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짧지만 압축하여 설명할 발표문은 동만주 지역에서 이들 여파가 어떻게 구체화했는가를 해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발표문은 필자가 그동안 분석한 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겠다.[1] 이때 그 중심체가 1920년 5월 결성된 대한북로독군부의 결성 분화 해체 과정을 따라 서술하겠다.

2.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과 독립군

독립전쟁을 통한 항일, 더 나아가 독립을 추구하기 시작한 때는 1907년 군대해산 직후부터였다. 전략론으로서 독립전쟁론에 관한 생각은 시기에 따라, 아니면 민족운동가의 활동 공간에 따라 조금씩 방점이 달랐지만,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겠다는 인식은 민족주의자 사이에 일반적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20년 시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름대로 독립전쟁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일전쟁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 전망하고 독립전쟁을 구상하였다. 이는 아래 글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1) <제1장 1920년 전후 재만한인 민족주의자의 민족 현실에 대한 인식과 독립전쟁론>, <<1920, 30년대 중국지역 민족운동사>>, 선인, 2005; <석고화한 기억의 재구성과 봉오동전투의 배경 - 1919, 20년 시점에 동만주 지역의 운동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 <<만주연구>> 26, 2018; <근대의 우상과 신화의 탄생 5 :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역사비평>> 127, 2019.

西比利亞는 過軍의 手中에 入하엿다, 過軍은 日本과 싸호랴 한다, 俄國은 大韓의 獨立을 承認하엿고 大韓의 獨立을 援助하기를 聲言하엿다.

中國은 起하려 한다, 山東問題와 韓國獨立援助問題를 提하고 起하려 한다

美國은 山東問題로 日本을 抵制하고 韓國獨立運動을 援助하라는 소리는 上院에 下院에 報紙에 敎會에 演說會에 瀰滿하엿다

時哉時哉라 天이 주신 時로다 뉘라셔 이러한 好時機가 이러케 速히 來到할 줄을 預想하엿던고

獨立軍을 編成하자, 國民아 나셔거라, 太極旗를 날리는 飛行機가 三角山 한 모통이로 도라들 날이 멀지 아니하다.

아아 大韓의 男女야, 닐어나거라 나셔거라.[2] (강조-인용자)

그래서였을까. 안창호는 1920년 1월 1일 통합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의 축사 제목을「新年은 戰爭의 年」이라 하고, "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獨立戰爭의 時機는 今年인가 하오 獨立戰爭의 年이 니른 것을 깃버하오"라고 말할 정도였다.[3]『獨立新聞』은 "明年 이날은 우리 漢城에서 新年祝賀會를 열고야 만다 今年 一年 안에는 우리의 神聖國土을 恢復하고야 만다 獨立은 하고야 만다 簡單히 말하면 이것이 一般의 感想이엿다. 同時에 決心이엿다"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전하였다.[4] 안창호는 이틀 뒤인 3일에 열린 민단 주최 신년 축하회에서「우리 國民의 斷定코 實行할 六大事」란 제목의 긴 연설까지 하였다. 이때 통합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벌일 때 가장 결정적인 활약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만주와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라고 보았다. 그래서「국무원포고」제1호도 두 지역 동포의 단결과 지원을 호소하였다.[5]

1920년 신년 모임은 즉각 독립전쟁이 일어날 듯이 말잔치가 풍성했지만 이후 시간이 경과하며 '준비'가 강조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신년 모임에서 한 달이 지난 후에 발표된「국무원포고」제1호는 1920년을 '獨立大戰爭의 第一年을 作할' 시기로 규정하였다. 이미 안창호는 민단의 신년회에서 연설할 때 '6大事'에서 독립하는 방법이 전쟁밖에 없으므로 군사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전쟁에는 준비가 필요한데, 통일적 행동, '訓鍊과 國民皆兵主義'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 임시정부가 취했던 조치의 하나가 군사제도를 갖추는 움직임이고, 만주에 파견원을 보내 통일조직을 결성하는 움직임이었다.

2)「時事短評」,『獨立新聞』1920.2.7.
3)「戰爭의 年」,『獨立新聞』1920.1.17.
4)「臨時政府新年祝賀會」,『獨立新聞』1920.1.8.
5)「國務院布告 第一號」,『獨立新聞』1920.2.5.

통합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주의 독립군을 통일 편제하는 한편, 지휘 체계를 꾸리기 위해 3월 16일 '대한민국 육군 임시 군제'를 제정하였다.[6] 또한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군정과 민정을 겸비하고 있던 만주 지역 독립군 단체들의 민정 부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독립군 단체의 역할 조정은 쉽지 않았다. 통합 임시정부가 각지의 독립군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군사 전략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역량이 없었던 데다, 만주지역 조선인 사회를 장악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19년 12월 1일자 국무회의에서 통합 임시정부가 결정한 타협안은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정부를 표방하지 않는 대신 '署'를 쓰도록 한다는 결정이었다.[7]

통합 임시정부의 타협안은 남만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한족회와 협의한 결과였다. 한족회 측은 군정부라는 군사기관과 함께 한족회라는 자치기관에 대한 통합 임시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군정부를 폐지하는 대신 통합 임시정부의 군사 제도와 지방행정이 완전히 실시될 때까지 '임시 군정서'를 둔다는 '서간도 타협안'을 통합 임시정부에 제안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로군정서, 대한군정서라는 명칭과 성격은 이러한 타협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1920년 들어 한족회, 또는 김좌진과 서일이 이끈 '군정부'라는 이름의 단체가 더 이상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통합 임시정부가 군정서 체제를 계속 용인했던 것 같지는 않다. 동만주 파견자로 지명된 안정근이 출발 직전 안창호에게 인사차 들렸을 때, 안창호는 각 단체의 지도자나 유력 인사들을 만나 거류민단에서 조선인 사회의 민사 분야를, 군사령부에서 군사 분야를 각각 분담할 수 있게 관철하도록 안정근에게 주문했다고 5월 1일자 일기에 썼다. 통합 임시정부는 궁극적으로 임시의 '군정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거류민단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통합 임시정부에서 민정 부분을 담당하고 군사 임무만 전담하는 구역별 사령부, 곧 남만주, 동만주, 러시아령에 일사분란한 지휘부를 두려고 하였다.

3. 통합 임시정부의 북로사령부로서 대한북로독군부의 성립

임시정부의 통합문제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만주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와 통합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타협안'을 통해 재설정된 이후, 만주지역 민족운동 단체의 통합 논의는 동만주, 남만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6) 신효승,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 전략과 '陸軍臨時軍制' 변화」, 『역사민속학』 54, 2018.
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8.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2006, 108쪽.

동만주의 경우 1920년 3월 8일부터 3일 동안 대한국민회와 군무도독부, 대한독립군 등 각 단체의 대표자 40명이 왕청현 蛤螞塘의 上村에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 비록 復辟主義를 내세운 大韓光復團의 이범윤 등이 "復辟을 企圖"했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8] 통합의지만은 확인한 자리였다.

다시 5월 3일 6개 단체의 대표자가 왕청현 '鳳儀洞', 곧 봉오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곳에 모여 서약서를 채택하였다.[9] 이때부터 봉오동이 독립군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중심 공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봉오동 골짜기는 수백 명의 독립군이 안정되게 주둔하며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최운산 형제의 경제력으로 의복과 식량문제, 그리고 무기를 보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5월 11일까지 참가 단체의 募捐隊를 소환하고 지방기관을 설립하며, 民意에 따라 사람을 모으고, '協議會'(매월 1일, 15일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는 등 18개 조항의 〈在北墾島各機關協議會誓約書〉에 서명하였다. 6개 단체가 구성한 협의회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다. 동만주지역 민족운동 세력의 주도권을 공화주의 세력이 확실히 장악한 것이다.

이들은 통합 임시정부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회가 통합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발하였다. 5월 5일 신민단, 대한군정서, 군무도독부, 광복단, 의군단 관계자가 모여 대한국민회에서 임시정부에 파견한 2인의 '대의사'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니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협의회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회로서는 동만주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15일에 회의를 열고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10]

국민회와 나머지 다섯 단체 사이의 마찰이 어찌 정리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군정서측이 이후 대한국민회가 참가하는 협의에 빠진 점으로 보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11] 그것은 협의회 한 부분을 채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5월 19일 대한국민회의 대표 김병흡과 군무위원회 대표 안무, 그리고 군무도독부의 대표 최진동 등 5단체가 봉오동에 모여 大韓北路督軍府를 결성하였다. 봉오동에 집결해 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대한북로독군부의 편성에 참가

8) 梶村秀樹 姜德相 編, 「朝特報 第21號 鮮內外一般ノ狀況(1920.4.5)」, 『現代史資料』 26, みすず書房, 1967, 301쪽. 대표적인 참석자 : 洪範圖 具春先 李範允 金光國 洪林 徐成權 黃丙吉 田義根 등.

9) 참가단체 : 新民團·大韓軍政署·軍務都督府·光復團·義軍府·大韓國民會.

10) 梶村秀樹 姜德相 編, 「國民會ト他ノ團體トノ確執ニ關スル件」,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0, 392-393쪽.

11) 대한국민회는 1919년 10월에 발표한 諭告에서, 임시정부가 인정한 동만지방의 "통일기관"이 있는데, 軍政府(대한군정서의 전신)를 표방하며 통일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한시라도 "容怒"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두 단체는 경쟁 관계였다[『獨立新聞』 1920.1.10(1)].

하였다. 대표자들은 회합에서 대한국민회는 행정기관, 대한북로독군부는 군사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한국민회가 대한북로독군부를 '보조'하여 모든 "軍務를 籌備"하기로 결정하였다.[12] 군정과 민정 조직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만주지역 독립군의 국내 진격 활동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즈음부터 본격화하였다. 가령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대한군정서는 1920년 3월부터 봉오동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인 5월경까지 함경북도 온성군에만 9회 가량 침투하여 일제의 통치기관과 친일파를 공격하였다. 일본으로서는 독립군의 활동이 조선 통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동만주지역이 "어제의 樂土가 아니라 불령선인의 소굴로" 바뀌었으므로 독립군의 동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13] 이때 일어난 사건이 6월 4일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에 있던 일본군 순찰 소대를 신민단의 독립군이 기습한 일이었다.

기습을 당한 일본군 남양수비대는 소대 병력으로 추격대를 만들어 두만강 너머의 삼둔자를 습격하였다. 독립군은 이들의 공격도 물리쳤다. 그러자 일본군은 더 큰 추격대인 월강추격대를 편성하고 6월 7일 왕청현 봉오동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이때 독립군과 일어난 싸움을 봉오동전투라 한다.

4. 봉오동전투 후 독립군의 분화

6월 21일자로 봉오동 근처의 장동(獐洞)에서 열린 각 단체의 연합회의는 군량을 저장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이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14] 그런데 대한군정서는 "독립주의에 기초"한 활동방식을 내세워 불참하였다.[15]

대한군정서를 제외한 9개 단체의 대표는 7월 1일 알하하(嘎呀河) 방면에서 통합 임시정부의 명령에 따라 대표자 연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각團 연합 통일의 필요상" 명칭을 취소할 것, 이에 기초하여 동만지방과 노령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 단체 소속의 모든 기관을 통일하여 "二部制"로 할 것, 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무기는 한 곳에 집합시키기로 결의하였다. 7월 7일에도 연합회의가 열렸다. 연합 협의회에는 임시정부의 파견원인 이용 이외에도 간도지방 몫으로 선출된 상히임시의정원의 계봉우도 참석하여 기관 통일에 관한 논의가 심화

12) 『북간도지역 독립군단명부』, 국가보훈처, 1997, 259쪽.
13) 金正柱 編, 「間島ニ於ケル不逞鮮人團ノ狀況(1920.10)」, 『朝鮮統治史料』 8, 한국사료연구소, 1971, 206쪽.
14)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行動狀況報告」, 앞의 책 27, 352쪽.
15)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行動狀況報告」, 앞의 책 27, 355쪽. 大韓軍政署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하거나, 러시아인 교관을 데려와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되었다.

회의 결과, 참가자들은 행정기관과 군사기관의 명칭을 확정하고 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16] 통합 임시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만지방 한인의 자치역량과 무장역량을 군사기관과 행정기관, 곧 民團으로 정돈하고 통일성을 강화하여 일제의 반격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항일투쟁도 보장하려는 조치였다.

이번 연합회의에서 주목되는 사항의 하나는 임시정부 파견원인 안정근과 왕삼덕이 6월 25일 明月溝에 도착하여 한 발언이다. 두 사람은 연합회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는 어떤 조직을 불문하고 "토벌 진압하여 우리 독립군의 안정을 통일"하라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17] 당시 상설적인 협의체에는 대한국민회 광복단 군무도독부 의군부 신민단 이외에도 의민단, 羅子溝에 있는 국민의사회 琿春韓民會 그리고 안무가 이끄는 대한국민회의 군무위원회가 새로 참가하였다. 하지만 대한군정서는 홍범도가 이끄는 "大韓北路司令部의 2團"과 함께 7월 1일자 결정에 '찬동'하지 않았다.[18] 특히 대한군정서는 자신의 주요 활동지와 大坎子 부근의 한인조차 연합회에 참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稍稍 狼狽"였다.[19]

이에 따라 대한군정서가 참가한 연합회, 즉 "제3회 각 團 대표자회의"가 연길현 지인향 구룡평에서 7월 13~15일에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지난번의 결정에 따라 民團制에 입각하여 행정기관으로 大韓民團, 軍務機關으로 東道軍政署와 東道獨立軍署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20] 회의는 단장에 구춘선, 부단장에 서상룡, 경호대를 지휘하는 군사위원장에 김은광, 민단고문과 군사 및군무고문에 통합 임시정부의 파견원인 李鏞과 안정근을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대한군정서를 동도군정서로 개칭하고 署長에 徐一, 4개 부대를 지휘할 사령관에 김좌진, 북로독군부를 동도독립군서로 바꾸고 署長 겸 사령관에 홍범도를 각각 임명하였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행정' 기능은 통일되었지만, 동만지방의 한인 무장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던 대한북로독군부와 대한군정서는 명칭과 지휘체계만을 형식적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군사기관보다 우위에 서서 군사기관을 통제할 수 없었던 당시 민족운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높은 통합이 아니었다.

단체의 통합이 힘을 받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군사기관의 지휘

16)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行動狀況報告」, 같은 책 27, 354쪽.
17)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行動狀況報告」, 같은 책 27, 355쪽.
18) '대한북로사령부 2단'이 어떤 조직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를 보건대, 홍범도의 반대는 그리 강하지 않았거나 반대 이유가 대한군정서와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19)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行動狀況報告」, 앞의 책 27, 355쪽.
20) 임시정부는 국무원령 제2호로 「臨時居留民團制(1920.3.16)」, 내무부령 제1호로 「臨時居留民團制施行期日(1920.3.30)」, 제2호로 「臨時居留民團監督制(1920. 3.30)」를 각각 공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韓詩俊,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國家報勳處, 1999, 237-242쪽 참조.

권 문제와 국내진공작전에 대해 대한군정서가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21] 군사기관의 지휘권 문제는 대한국민회와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한군정서의 의도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또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진공작전 문제도 일제와의 決戰에 대비하는 방법의 차이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병력, 군수품이 완비"된 이후 "일본에 대하여 정식으로 선전을 포고하고 雌雄을 決行하려고 하는" 단체와 달리, 홍범도는 "조국의 독립을 期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면의 적으로 間島에 있는 일본 관헌의 활동을 沮害하고, 이곳에서 완전한 독립의 기초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내외적인 때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자는 입장과 일상적인 무장활동 속에서 역량을 키우며 일제와 전쟁에 대비하자는 주장은 엄청나게 다른 견해다. 형식적인 연합에 그친 또 다른 원인은 안정근이 "특히 대한군정서측의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통합 임시정부의 통합원칙에 일관성이 없었다.[22]

그런데 6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벌어진 봉오동전투가 끝난 후 홍범도부대가 일제에 아무런 응전을 하지 않은 채 급속히 퇴각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본 대한북로독군부의 최명록이 홍범도를 비판하였다.[23] 더구나 대한국민회와 최명록의 군무도독부 사이에도 갈등 요인이 있었다. 대한국민회가 대한북로독군부 제3대를 조종하여 무장대의 지휘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대해 최명록이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홍범도는 부대를 이끌고 명월구를 거쳐 8월에 화룡현 臥龍洞에 주둔했다. 이렇게 되자 대한북로독군부의 제2, 3, 4대가 그의 뒤를 따랐고,[24] 최명록은 군무도독부의 군대를 이끌고 왕청현 라자구로 이동하였다. 이에 연합 협의회를 열러 대한북로독군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8월 7, 8일 이틀간 一兩溝에서 다시 열렸지만 의견 절충에 실패하였다.[25] 대한군정서는 이번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 이르면 대한북로독군부 내부 갈등의 중점은 군무도독부와 대한국민회의 갈등이었다. 회의 직후인 12일에 군무도독부의 최운산이 이끄는 부대가 대한국민회 동부지부의 구역에 들어가 활동하며 국민회를 압도하려고 움직임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국민회 지방조직들은 홍범도부대에 의탁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대한국민회 중앙 지도부도 8월 12일자로 국민회군무회를 설치하고 안무를 사령관으로 하는 국민군사령부도 두었다. 대한국민회가 독자적인 무장력을 갖추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1) 梶村秀樹 姜德相 編, 「大韓軍政署側ノ行動ニ關スル件」, 앞의 책 27, 366쪽. 357쪽.
22) 梶村秀樹 姜德相 編, 「情報」, 같은 책 27, 395쪽.
23) 梶村秀樹 姜德相 編, 「大韓北路獨軍府ノ內訌ニ關スル件」, 같은 책 27, 396쪽.
24) 梶村秀樹 姜德相 編, 「大韓北路獨軍府ノ內訌ニ關スル件」, 같은 책 27, 396쪽.
25) 梶村秀樹 姜德相 編, 「不逞鮮人根據地並ニ各組織ニ關スル件」, 같은 책 27, 368쪽.

결국 이때에 이르면 대한군정서, 홍범도부대, 군무도독부, 국민회군이란 4개의 독립군으로 동만주 지역 무장대를 대표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과정에서 홍범도의 군사적 영향력은 증대해 갔으며, 대한군정서는 자신만의 독자성을 계속 유지한데 비해, 군무도독부의 군사적 영향력은 약화되어 갔다.

5. 청산리전투 당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독립군의 세 축

봉오동전투 후 봉오동은 독립군 근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군무도독부조차 그곳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았다. 대한북로독군부에서 함께 했던 독립군들의 분화과정에서 군무도독부는 봉오동보다 더 북쪽에 있는 왕청현 라자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측에서 무장대의 해산을 종용하고 퇴거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내진입작전을 고수하려 했던 군무도독부는 이미 병력도 백여명에 불과한데다 후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9월 11일 '楊子頂子'를 출발하여 라자구로 이동하였다.[26]

이들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독립군도 있었다. 주지하듯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에 이어 김좌진의 대한군정서 군대도 백두산 방향인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렇다고 서쪽 방향으로 가는 접근이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쟁에서 시사받을 수 있다.

> 이영지(移營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론(兩論)이 있었다 한다. 서일 총재는 후방인 중소 국경지대로 옮기자고 하는 데 반하여 현천묵 총재는 백두산으로 가자는 것이다. 후방으로 가면은 인적 물적 곤란이고 전방으로 가면 인적 물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현총재에 의견을 따라 (…)(밑줄—인용자)[27]

이 가운데 중소 국경지대로 옮기자는 주장은 군무도독부의 선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독립군은 백두산이 있는 서쪽 방향을 선택하였다. 식민지 조선과 인접하고 이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만주를 떠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다수의 독립군은 서쪽 이동을 선택하였다.

하나는 10월 10일경 삼도구 靑坡湖에 결집한 600여명의 대한군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10월 16일 漁郎村에 결집한 홍범도부대, 대한국민회군, 훈춘한민회부대 등 1,950여 명의 홍범도 연합부대였다. 홍범도의 연합부대는 10월 13일 北蛤

26) 「大正9年10月1日 不逞鮮人ノ行動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2, 134쪽.
27) 『청산리대첩 이우석 수기—신흥무관학교』, 독립기념관, 2013, 95쪽.

蟆塘에서 신민단 의민단 훈춘한민회의 대표자와 회합하며 형성되었다. 회의에서는 무력을 통일하고 대한국민회의 軍籍에 오른 사람을 총동원하며, 군량과 군수품을 긴급히 징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虛를 찌르거나 산간으로 유인하는 활동 이외에는 전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한 일제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군사역량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김좌진의 대한군정서가 각각 따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주지하듯이, 청산리전투는 두 사람이 지휘하는 독립군이 1920년 10월 21일부터 6일 동안 각각 싸운 전투였다. 두 사람이 지휘하는 독립군은 청산리에 함께 매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전투가 벌어진 청산리 일대의 공간을 전투 이전에 의식적으로 분담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공동 작전 차원에서 연합하여 싸우는 전투와는 거리가 있었다.

한편, 라자구 방면으로 북상한 군무도독부는 광복단 신민단 의군부 그리고 이범윤과 함께 문창범을 총장으로 하는 大韓總軍府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서쪽 방면으로 이동한 독립군을 第1攻日軍, 동녕현 노흑산 방면의 독립군을 제2공일군으로 결성하여 서로 호응하고, 동만주의 각 독립군으로부터 3백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폭탄과 배일선전문을 휴대하고 조선으로 잠행하여 각지에서 소요를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시베리아 내전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인 대원 3백명과의 제휴도 모색하였다. 그러나 동만주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러시아 방면으로 북상하였다.[28)]

6. 맺음말 – 독립전쟁론과 동만주지역 독립군

통합 임시정부에게 동만주는 러시아와 남만주 지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이자 국내 진입에 유리한 곳이어서 '책원지'로 간주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그곳에서 독립군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두 차례의 큰 전투에서 역량을 보존하도록 기대하였다.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한 임시정부로서는 정면 충돌보다는 역량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직 활용해야 할 대외정세, 곧 미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전쟁론의 특징의 하나인 '대외정세활용론'이 갖는 맹점이 여기에서 확인된다고 하겠다.

통합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북로사령부는 1920년 시점에 독립전쟁을 수행하려는 핵심 중에 핵심 지휘부였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독립군이 일본의 침략에 맞

28) 「大正9年11月30日 間情 第59號 送付」,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4, 122쪽. 140쪽. 142쪽.

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연이어 치르면서도 동만주에서 밀려났다. 비정규부대의 생명선인 대중과 멀어지면 보급과 인력보충의 끈이 약해진 것이다. 더구나 북로사령부가 해체되었으므로 역량을 결집하며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따. 임시정부로서는 독립전쟁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안팎의 용인으로 무장력이 크게 약화되는 현실을 목격해야만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비정규부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까지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있지 않고 역량을 보존하는데 있다. 두 전투에 참전한 독립군은 이 점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 부대의 무기 도입

신 효 승 (동북아역사재단)

순서

Ⅰ. 머리말
Ⅱ. 일본 육군의 '노획품' 정리 현황
Ⅲ. 미국産 모신나강
Ⅳ. 맺음말

Ⅰ. 머리말

3.1운동 이후 독립군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29] 독립군은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전력 강화는 부대 규모를 증가하기 위해 병력을 확충하는 것과 전투를 위한 각종 물자와 장비 그리고 화기를 보충하는 군수지원이 주된 활동이었다.[30] 독립군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병력을 확충하였고, 폭탄을 비롯하여 무기를 직접 제작하고자 노력하였다.[31] 봉오동을 근거지로 한 독립군 역시 폭탄 등을 자체 제작하고자 시도하였다.[32] 하지만 이러한 독립군의 시도는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결국 독립군은 군수지원, 특히 화기와 탄약 등은 수입에 의존하였다. 이것은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독립군의 무기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의 무기체계 구축 과정에서 화기 특히, 소총 등의 개인화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기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사실상 군대는 무기를 통해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한인 무장 독립운동의 양상을

29) 김도형,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94, 444~445쪽.
30) 군사적 목적 달성, 특히 군의 전술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가용자원에 대한 지원 활동을 '군수지원'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자, 장비, 화기 등을 준비하고, 적시 · 적소 · 적량의 할당을 포함한다.(『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 2006, 115쪽)
31) '支那官憲の不逞鮮人取締に関する件'(1920. 2. 3), 『朝鮮騷擾事件関係書類』 5冊
32) '密第102号其802 国外情報 爆弾製造に関する件'(1920. 4. 1), 『朝鮮騷擾事件関係書類』 6冊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이다. 소총 등 개인화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당시 독립군은 보병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했고,[33] 보병은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소총을 주로 개인화기로 갖추었다. 보병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기의 군수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독립군의 무기체계 구축을 위한 기왕의 연구는 일본이 독립군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남겨 놓은 자료를 중심으로 독립군의 무기 구입과 운반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34] 이러한 연구 성과는 독립군의 무기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본의 독립군 첩보 자료는 일본군의 작전 수행전 상황과 개략적인 상황파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군의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독립군의 무기체계 특히 개인화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립군이 남겨 놓은 개인화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립군의 개인화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본군이 독립군 등과 전투 이후 입수한 각종 물자, 화기 등의 현황 즉, '노획품'[35] 현황 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일본군의 '노획품' 현황을 토대로 무장 독립운동 측면에서 독립군의 무기체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독립군의 독립전쟁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일본 육군의 '노획품' 정리 현황

세계대전 이후 전쟁중 생산된 무기는 상당수는 폐기하였지만, 일부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계속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러시아 내전과 중국의 군벌 간 충돌은 동북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무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유입되었다.

주요 열강은 세계대전 이후 남아 있는 무기중 일부를 동북아시아에 판매하였고, 동북아시아는 각국에서 판매한 무기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러한 무기 중에는 권총부터 항공기까지 다양하였지만,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화기의 수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독립군 역시 병력을 확충하면서 무기가 필요하였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총 등 개인화기였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주로 사용한 소총은

33) 신효승,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전략과 '陸軍臨時軍制' 변화」, 『역사민속학』 54, 2018 참조
34) 박환, 「3.1운동 직후 만주지역 독립군과 무기」, 『전쟁과 유물』 7, 2015.
35) 일본군은 전투 후 입수한 각종 물자와 화기 등을 '노획품' 즉, 전투행위 결과로 전리품을 획득한 것으로 표현하였다.('鹵獲物處置の令'(1877. 3. 5), 「軍中制規」) 하지만 독립군에게 일본군이 패배한 이후 독립군이 철수하면서 남겨 놓은 물자와 장비 등을 전리품으로 획득했다고 일본군이 보고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시 사료상 표현에 '노획품'이라고 지칭하되, 이른바 '노획품'이라고 하여 이런 특징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소총이었다.[36]

> (1920년) 3월 12일 허재명의 의뢰로 기관총 7문, 군총 220정, 탄환 18,000발, 권총 22정을 썰매 8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도구까지 이동하여, 중국령 チヨンニヨンアイ에 있는 홍범도의 허락 하에 반출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복귀[37]

독립군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무기를 들여왔다. 당시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정 러시아 당시 군인들은 많은 무기를 내다 팔고 있었고, 심지어 민간 시장에서도 이들의 무기를 팔고 있었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무기 중에는 기관총과 같은 공용화기부터 소총 같은 개인화기까지 다양하였지만, 독립군은 전술과 부대 특성, 특히 전술적 환경상 주로 개인화기 즉 소총을 중심으로 수입하였다.[38] 독립군은 이렇게 사들인 무기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였다.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의 무기는 주로 일본 38식 보병총과 러시아 군용총이었다.[39]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기에 주목하였고, 무장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탄피와 노획한 탄약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독립군에게 패배한 이후 후퇴하면서 전투 지역에서 발견한 각종 물품을 '봉오동 부근 전투 노획품'이라고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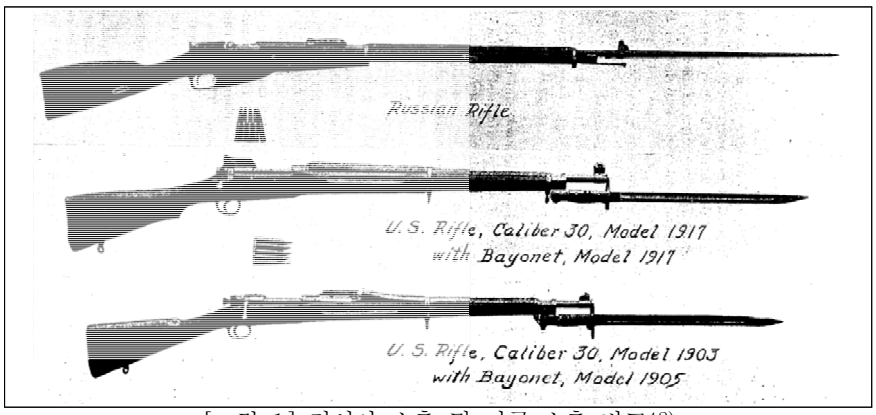
구분	소총	권총	탄약	나팔	쌍안경	피복	서류
수량	7	2	537	1	1	약간	약간

[표 1] 봉오동 부근 전투 노획품[40]

「봉오동부근전투상보」에서 일본군은 전투당시 입수한 독립군의 물품을 소총 등 화기를 포함하여 이른바 '노획품'이라는 명목으로 보고하였다. 이중 소총은 종류별로 명확히 분류하지 않았지만, 탄약은 총기별로 종류를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36) '北支那兵器調査の件'(1926. 12. 18),『密大日記』6冊の内 第6冊
37) '不逞鮮人銃器弾薬運搬の件'(1920. 4. 1.)
38) '対岸不逞鮮人の行動, 露領より武器到着'(1920. 4. 12) 독립군의 기관총 등 공용화기 사용에 대한 전술적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39) '不逞鮮人団国境憲兵監視所来襲状況の件報告'(1920. 4. 10)
40) '大正九年六月七日 戰鬪鹵獲表', 「鳳梧洞附近戰鬪詳報」(독립기념관 소장)

분류한 탄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제 38식 소총 탄약 19발, 러시아식 소총 탄약 503발 그 외 총기 탄약이 15발이다.[41] 일본군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탄약 종류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봉오동 부근 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수행한 독립군은 주로 러시아식 소총에서 사용하는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 소총 및 미국 소총 비교[42]

이른바 '노획' 한 탄약을 토대로 독립군의 무기를 추정하는 것은 일본군이 전투 결과 보고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였다.[43] 이러한 분석은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빈번해지면서 비정규군인 독립군에 대한 분석 차원에서 주요하였다. 그 배경은 같은 구경의 소총이라고 해도 소총별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탄약에서 소총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군이 이른바 '노획물' 이라고 보고한 탄약의 양만으로 독립군이 보유한 소총별 비중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정 탄약을 사용하는 소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음 보유한 탄약을 그대로 유지하다 전투 과정 중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유기한 것을 일본군이 대량으로 습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립군의 화기 현황을 일본군이 습득한 탄약의 양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봉오동 전투 직전이었던 1920년 4월 10일 독립군은 함경북도 온성의 미산에 있는 헌병 감시소를 공격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전투 결과 보고에서 습득한 탄약 및 전투중 사용한 탄피 그리고 전투 과정에서 식별한 무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

41) '大正九年六月七日 戰鬪鹵獲表', 「鳳梧洞附近戰鬪詳報」(독립기념관 소장)
42) ODN1861, Handbook of Ordnance Data 329
43) '不逞鮮人団国境憲兵監視所来襲状況の件報告'(1920. 4. 10)

다. 일본군은 독립군이 보유한 무기의 소총을 일본제 38식 소총과 러시아식 소총으로 보고하였고, 이때 독립군의 무기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사례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고, 더욱이 독립군 간의 차이와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1920년 중후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역 등에서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동일지역 전투 결과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직전까지 독립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 직전 이루어진 일본군의 이른바 '노획' 한 무기 및 탄약 현황 등은 분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군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군은 전투 결과에서 향후 전투 준비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전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이난 전쟁 부터 이른바 '노획물' 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44] 이런 절차에 따라 1920년 5월 보고 역시 이루어졌는데, 이때 보고는 향후 군사 작전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였다. 일본군은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을 대상으로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니콜라옙스크 사건 이후 시베리아에 재 파병을 검토하였고, 이때 파병 지역에서 일본군 작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을 한인 무장 단체 즉 독립군으로 판단하고 있었다.[45] 이 때문에 일본군 작전에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 무기는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이 작전상 위협으로 상정한 한인 무장 단체는 비정규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르티잔이었고, 파르티잔의 무기는 비정규군의 특성상 보급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군과 달리 불규칙하였다. 이것은 작전 수립에서 상대 무기에 대한 정보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였다. 일본군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전까지 각종 첩보에 더해 일본군이 습득한 무기

44) 일본군은 1877년 세이난 전쟁 당시 이미 「軍中制規」에서 '鹵獲物處置の令'(1877. 3. 5.)을 명령으로 하달하여 이른바 '노획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고,(『征西戰記稿附録』 4) 러일전쟁 이후에는 '戰利品整理規程'을 제정하여 제도화하였다.(『滿大日記』, 1907. 4. 16. - 4. 30.)

45) 1차 세계대전 중 체코 군단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독일 간에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체코 군단은 러시아에 고립되었고, 연합군은 러시아에서 이들의 철수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이른바 '간섭전쟁'을 시작하였다.(RUSSIA, FRUS, 1919, p. 297.) 하지만 1919년 말에 체코 군단의 철수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RUSSIA, FRUS, 1919, p. 585.) 미군은 체코 군단의 철수를 마무리하면서 1920년 1월 9일 철수를 일본에 공식 통보하였다.('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Japanese Ambassador (Shidehara) Washington, January 5, 1920', in FRUS, 1920, VOLUME III) 일본 역시 미군과 함께 철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1920년 3월 니콜라옙스크 사건을 빌미로 재파병을 선언하였고, 한인을 상대로 보복하였다.(A Ya Gutman, Richard A Pierce, *The destruction of Nikolaevsk-on-Amur : an episode in the Russian Civil War in the Far East, 1920* (Fairbanks : Limestone Press, 1993), p. 48.) 4월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톡을 점령하면서 신한촌 등에서 한인 학살을 자행하였다.(菅原佐賀衛, 『西伯利出兵史要』, 偕行社, 1925, 156~157쪽.) 일본 정부는 6월 28일 시베리아에 일본군 재 파병을 선언하였다.(日本外務省, 『日本外交文書(1920)』 第一冊 下巻, 外務省, 1949, 794~796쪽.)

현황은 파악하여 파르티잔의 무장 상태를 가늠해 작전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독립군에 대한 탄압 작전을 수립 차원에서 이른바 '노획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분	구식소총	단발총	연발총	30식	38식
수량	44	1,892	1,478	20	245

[표 2] 1920년 5월 블라디보스톡 파견군 보고 현황[46)]

블라디보스톡 파견군은 노획 소총을 단발과 연발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생산년도가 오래된 총기는 구식 소총을 따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류와 별개로 일본제 30년식 소총과 38년식 소총은 구분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47)] 이때 일본 육군은 소총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과 평시 연습용 그리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廢品이다.[48)] 일본 육군 제식 총기로 사용 중에 있는 30식과 38식 소총의 경우에는 전투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산리 전역 직후의 이른바 '노획품' 정리 현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구분	38식	30식	러시아식	기타
수량	72	3	362	224

[표 3] 청산리 전역 이후 보고 현황[49)]

1920년 11월 일본군이 간도지역에서 이른바 '노획'한 소총을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현황을 보고한 내용에서도 30식과 38식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와함께 노획 소총 중 러시아식 소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노획품만을 토대로 한다면 독립군이 보유한 소총은 상당부분 러시아식 소총이라고 할 수 있다.

46) '戦利兵器現在数表提出の件'(1920. 6. 4),『西受大日記』 1920. 7.
47) 戦利品은 '戦利品規則'과 '戦利品整理規程'에 따라 군용과 상용으로 구분하였다.(제6조 '戦利品整理規程中改正の件'(1913. 11. 15),『欧受大日記』) 군용으로 분류된 것은 '兵器取扱規則'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陸軍成規類聚』하, 1907, 48쪽)
48) '兵器細目名称表及兵器取扱規則改正の件'(1906. 5. 21.),『永存書類 甲輯』第5類 第2冊
49) '鹵獲品処分に関する件'(1921. 3. 15),『間島事件関係書類』共2冊其1. 陸軍省

> 신한촌의 불령선인 이행식은 1월 14일 군총 130정을 신한촌으로부터 아무르만을 따라 바라바쉬 부근의 암밤비로 수송하였다고 하며, 이 총은 소위 군정부 지부원인 泰學新, 姜國模 등이 체코군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조선인 허재명, 유기룡 및 양모 등이 다량의 주정을 밀수입하고 그 대금 및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다액의 금원으로써 총기 및 탄약을 구입하고자 분주하고 있다고 한다.[50]

이처럼 독립군은 러시아식 소총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전력을 강화하였다. 독립군 보유 무기 중 러시아식 소총의 비중은 1920년 4월 15일 이전까지 블라디보스톡 파견군에서 보고한 지역별 '노획품' 누적 정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구분	30식	38식	러시아식
블라디보스톡	28	147	1,551
하얼빈	2	10	286

[표 3] 1920년 4월 15일 이전 누적 현황[51]

1920년 4월 15일까지 누적 현황 정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때 주로 활동하던 파르티잔이 중국 동북지역 특히 북간도를 기반으로 한 한인 독립군이었기 때문이다.[52]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간 중 일본군의 '노획물' 누적 정리 현황은 독립군이 보유한 총기 중 러시아식 총기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본군 첩보 기록을 통해 무기의 유통경로를 확인해도 독립군은 주로 시베리아와 연해주 등지에서 무기를 입수하였고, 이때 무기를 독립군에게 판매한 사람은 대부분 러시아인과 체코인이었다.[53] 이러한 관계는 독립군의 무기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이른바 '모신나강'이라고 불리던 당시 러시아식 총기가 과연 이전 시기의 모신나강과 동일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세

50) 국회도서관, 『韓國 民族運動史料 : 三.一運動篇 2』, 國會圖書館, 1978, 714쪽.
51) '戰利兵器処理の件'(1920. 11. 8), 『西密受大日記』 1920. 11. ~ 12.
52) 신효승,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53) 박환, 「3.1운동 직후 만주지역 독립군과 무기」, 『전쟁과 유물』 7, 2015, 29쪽.

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총기라도 다양한 제조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Ⅲ. 미국産 모신나강

일본 육군의 보고에서 러시아식으로 분류한 소총은 당시 러시아군의 제식 소총인 '모신나강(Mosin-Nagant)'을 의미한다.[54] 모신나강 소총은 1891년 러시아 모신의 총기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발한 것으로, 러시아는 그 해 4월 16일 러시아군 제식 소총으로 '모신나강'을 결정하였다.[55]

보병은 소총 등의 개인화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보병 병력의 증가는 곧 총기 수요로 이어졌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는 113만 5천 명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다.[56] 그중 보병은 개인화기로 소총을 지급받고, 전쟁터에서 작전을 비롯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쟁 기간 중 러시아의 인명피해는 27만 명에 달하였고,[57] 이렇게 발생한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보병에서 발생하였다.

일본군은 러일전쟁 기간중 러시아군이 남겨 놓은 상당한 전리품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전리품은 주로 전투중 보병이 갖고 있던 개인화기 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110,548정에 달하는 러시아식 소총을 노획하였다.[58] 이처럼 보병 병력의 규모는 소총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병력을 동원하였고, 이들에게 개인화기로 소총을 지급하였다. 러시아의 98개 보병사단과 37개 기병사단은 독일로 향하였다.[59] 당시 러시아군 1개 보병사단은 14,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병사단은 4,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60] 보병사단에 지급된 소총만 대략 산술적으로 추산할 때 1,372,000정이 필요하였고, 여기에 기병사단까지 고려할 경우 148,000정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군이 세계대전 개전 직후 사용한 소총의 규모가 약 150만 정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대전 초 탄넨베르크 전투에서만 15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61] 이 과정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과 함께 그들에게 개인화

54) 러시아어로 '7,62-мм винтовка системы Мосина обр. 1891 г. (1891/30 гг.)'이다. 여기서 1891은 1891년 제식으로 정식 채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년도, 생산년도 등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
55) Bill Harriman, Johnny Shumate, Alan Gilliland, *The Mosin-Nagant Rifle* (London : Osprey Publishing, 2016), loc. 208. *Leeds Mercury*, August 14, 1891, 'The New Russian Rifle'
56) 로스뚜노프외전사연구소,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61쪽.
57) 로스뚜노프외전사연구소, 『러일전쟁사』,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480쪽.
58) *The Straits Times*, May 22, 1906, 'The Spoils of War : A Comprehensive List'
59) 존 키건, 『1차 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9, 205쪽.
60) Norman Stone, The Eastern Front 1914-1917.(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976), p. 44
61)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5만 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독일군에게 9만 2,000여명이 포로로 잡

기로 지급한 소총 역시 상당수를 상실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러시아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전력을 복원하고자 하였다.[62] 당연히 이때 동원한 병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총 역시 함께 필요하였다.

문제는 당시 러시아는 동원한 병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총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생산량은 하루 2,000정이 한계였다.[63] 즉, 러시아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상실한 15만여명의 병력에게 지급하기 위한 소총만 75일 이상 소요되었다. 더욱이 러시아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갔고, 이에 대한 군수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합국에 소총 생산을 요청하였고, 우선 일본에 요청하여 소총 등 화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이후 영국 등 연합국에 추가적인 보급을 요청하였다.[64]

러시아는 일본에게 소총 190만 정과 탄약 15억 발을 주문하였다. 이에 일본은 민간에 병기 제작소를 신설해 러시아의 주문을 發注하였다.[65] 일본은 40만정의 소총을 생산해 러시아에 공급하였다.[66]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러시아는 1916년 이후 미국에 추가로 소총을 주문을 하였다.[67] 러시아는 일본을 비롯하여 연합국에게 받은 총기로 군대를 무장하였고, 여기에는 체코인 부대도 있었다.

1917년 4월 미국은 독일과 동맹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에 합류하였다. 연합국에 미국이 합류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에서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68] 다만, 미국의 지원은 일종의 차관으로서 러시아의 채무로 이어졌고, 1917년 러시아는 혁명 과정에서 대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주변 국가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여 러시아에 공급을 중단하였다.[69]

특히 러시아 혁명 정부는 정권 수립 이후 단독으로 독일과 휴전하면서, 연합국은 러시아의 전선 이탈과 체코 부대를 빌미로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여 무력으로

혔다.(존 키건, 『1차 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9, 215쪽)

62) 존 키건, 『1차 세계대전사』, 청어람미디어, 2009, 216~217쪽.

63) Bill Harriman, Johnny Shumate, Alan Gilliland, *The Mosin-Nagant Rifle* (London : Osprey Publishing, 2016), loc. 541.

64)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 1467, оп. 1, д. 480, л. 281-282.

65) '露国政府へ兵器譲与ニ関スル約款ノ件'(1915. 9. 17.), 『公文別録 · 陸軍省 (1889-1918)』 1권

66) 『Поливанов А.А. 일기』, 1915. 9. 12. (См.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4, № 2, л. 153-154.)

67) 러시아 정부는 미국 Remington社와 Westinghouse社에 150만정 이상 주문하였다.(Luke Mercaldo et, *Allied rifle contracts in America : Mosin-Nagant, Mauser, Enfield, Berthier, Remington, Savage, Winchester* (Greensboro : Wet Dog Pub, 2011), p. 53)

68)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전쟁 채무에 대한 러시아 대사와 미국 정부 간의 전문에서 잘 나타난다.(The Ambassador in Russia (Franci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18, RUSSIA, VOLUME III)

69) 미국 정부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러시아가 미국의 Remington社와 Westinghouse社에 소총 구매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각각 2,500,000달러와 1,500,000달러라고 전달하였다.(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Russia (Francis), Washington, July 25, 1917, 6 p.m., File No. 861.51/170a, FRUS, 1918, RUSSIA, VOLUME III)

러시아에 간섭을 결정하였다.[70] 1918년 9월 26일 미국 역시 시베리아에 병력 파견을 공식화하고,[71] 시베리아의 체코인 부대에 미국은 군수물자와 의류 등을 공급하였다.[72]

미국 등 연합국이 러시아에 군대 파병을 검토할 때 러시아내 체코인 부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는 군수물자를 블라디보스톡 주재 미국 영사를 통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하였다.[73] 미국 정부는 미군의 시베리아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 내 체코인 부대에 지원을 결정하였다.[74] 이것은 영국 역시 마찬가지였고, 8월 4일 영국은 체코인 부대에 기관총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75] 미국은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체코인 부대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공급하였다.[76]

당시 프랑스는 시베리아에 파병하면서 체코인 부대를 통합하여 프랑스 파병 부대를 편성하였다.[77]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미국 정부에게 무기 및 군수물자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국은 총기의 경우 이미 재고로 쌓여있던 미국産 러시아식 무기를 공급하였다.[78] 다만, 미국이 공급한 무기는 시베리아에서 체코인 부대를 비롯하여 시베리아에 파병한 미군에게도 환영받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미국産 모신나강은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잘 만들어진 소총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이전 러시아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던 모신나강에 비해 시베리아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생산한 모신나강의 경우 무기 그 자체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생산한 모신나강보

70) 『西伯利出兵史』 上, 1942, (新時代社 영인본, 1972), 13쪽. 미국은 6월에 간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The Consul at Vladivostok (Caldwell) to the Secretary of State, Vladivostok, June 10, 1918., File No. 861.00/2031, FRUS, 1918, RUSSIA, VOLUME II)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은 그 이전인 3월 5일로서, 당시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시베리아 파병을 촉구하였다.(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Japan (Morris), Washington, March 5, 1918, 4 p.m., File No. 861.00/1246, FRUS, 1918, RUSSIA, VOLUME II)

7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Japan (Morris), temporarily at Vladivostok Washington, September 26, 1918, 6 p.m., File No. 861.00/2772, FRUS, 1918, RUSSIA, VOLUME II ;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bassador in Great Britain (Page), Washington, September 26, 1918, 8 p.m., File No. 861.00/2799c, FRUS, 1918, RUSSIA, VOLUME II

72)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Consul General at Irkutsk (Harris), Washington, October 9, 1918, 5 p.m., File No. 861.00/2841, FRUS, 1918, RUSSIA, VOLUME II

73) The Consul at Vladivostok (Caldwell) to the Secretary of State, Vladivostok, June 25, 1918, 7 p.m., File No. 861.00/2137, FRUS, 1918, RUSSIA, VOLUME II.

74)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French Ambassador (Jusserand), Washington, September 27, 1918., File No. 861.00/2421, FRUS, 1918, RUSSIA, VOLUME II.

75) Jamie Bisher, *White terror : Cossack warlords of the Trans-Siberian* (Abingdon : Routledge, 2009), p. 82.

76) Frederic Faust, *The Lineage of the Mosin-Nagant: Facts and Circumstance i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Mosin-Nagant Rifle* (Middle Coast Publishing, Incorporated, 2016), Loc 167.

77) 『西伯利出兵史』 上, 1942, (新時代社 영인본, 1972), 34쪽)

78) 『西伯利出兵史』 上, 1942, (新時代社 영인본, 1972), 19쪽)

다 일부를 개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소총을 전술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기의 재료가 작전 환경에 부합해야 가능하였고, 더불어 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장과 보관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에 부합한 부속과 자재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한 총기와 부속 그리고 자제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영국에서 보급한 기관총은 수냉식일 경우 동계에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공랭식의 경우 충분한 교체 총신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시간 사용만이 가능하였다. 심지어 동계에는 총열의 냉각 정도가 차이가 발생하여 쉽게 파열되었다. 미국산 모신나강의 경우에도 주로 미국에서 생산한 목재와 철강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총기 생산 기준에 맞춘 상태였다. 이러한 기준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베리아의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종종 파손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기가 아닌 총기에 사용하는 유류와 탄약에 있었다. 미국산 모신나강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한 유류와 탄약은 동계의 추위 등으로 쉽게 불량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유류의 경우 별도의 동계용이 필요했다.[79] 이러한 미국산 총기와 탄약 등의 문제점은 이후 독립군의 도입 과정에서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Ⅳ. 맺음말

1920년 독립군은 봉오동과 청산리 등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사실상 독립전쟁을 개시하였다. 일본군의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이 봉오동 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전쟁준비의 결과였고, 이것은 독립군의 규모 확충과 함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를 보충한 결과였다.

여기서는 독립군의 무기 보급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립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내전과 중국 군벌 간의 충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때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독립군이 도입한 무기는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가 중심이었고, 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왔다.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는 적백내전이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 등의 침공이 이어지면서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제정 러시아 당시 군인은 무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서부유럽으로 돌아가려는 체코인 부대 역시 무기를 팔았다. 독립군은 주로 이들에게서 무기를 구입하였다.

79) Allen F. Chew, *Fighting the Russians in winter : three case studies* (Fort Leavenworth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2), pp. 1-15.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는 독일의 공격에 지속적인 무기 보충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무기를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후에는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제정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미국은 1918년 체코군 구출을 명목으로 러시아에 간섭을 개시하였고, 이때 이전 러시아에서 발주한 소총을 체코군과 시베리아에 파병한 미군에게 공급하였다. 체코군은 이렇게 공급받은 소총을 유럽으로 철수하면서 독립군에게 공급한 것이다. 결국 독립군은 미국에서 생산한 소총으로 봉오동과 청산리 등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군의 무기는 이후 독립군 전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토 론 문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항일무장투쟁은 1919년 3 · 1운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독립운동을 통괄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국내외에서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이 활발해지고,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만주 및 러시아 연해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특히 만주 및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는 이주 한인들의 물적 · 인적 지원 하에 1910년대 독립군기지 건설 사업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독립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독립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력 증강이 시급했습니다. 병력의 확충, 총기와 탄약 등 화력증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군자금 모집 등은 모든 독립군단체에서 우선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봉오동 · 청산리전투의 승전 요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었고, 당대의 기록에서도 그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독립운동의 이념이나 전쟁의 과정에 집중되었고, 부분적으로 병력 규모, 무기 정도, 군사훈련 방법, 군자금 모집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전쟁의 필수요소인 무기체계에 관한 논의는 미약한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기체계를 다룬 이 발표문은 특히 봉오동 · 청산리전투에서 일본의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의 승전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독립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은 크게 두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군의 무기체계에서 개인화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발표자는 일본군이 독립군과 전투 이후의 '노획품'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봉오동 · 청산리전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무기는 일본제 30식, 38식이며, 이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러시아식 소총을 적극적

으로 수입하여 전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군이 소지한 러시아식 '모신나강(Mosin–Nagant)'의 생산지가 러시아가 아니며 미국에서 생산한 총기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체코 부대를 지원하면서 체코 부대에 미국산 모신나강이 다량으로 유입되었고, 한국 독립군은 이 총기들을 체코 부대로부터 수입하여 봉오동 · 청산리 전투를 수행했다고 논증했습니다.

질문:

1. 〈표〉 2, 3, 4에 의하면 봉오동 · 청산리전투 전후로 이미 러시아식 소총이 일본식 소총보다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군정서 측의 기록에 의하면 군정서가 체코 부대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시기는 청산리전투 직전인 1920년 7월 말부터 9월 초이다. 이때 수입한 소총은 기록에 따라 320~1,800정에 이른다. 이에 근거하면 적어도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러시아식 무기는 미국산 모신나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된 러시아식 무기까지 전반적으로 미국산 소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당시 시베리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한 체코 부대의 이동이 1918~19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독립군의 무기 구입 경로는 그 이전부터 러시아군, 중국마적단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었다.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된 러시아식 소총의 생산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발표자의 의견은?

2. 발표자는 독립군의 무기체계를 일본의 '노획품' 현황보고에 집중하여 무기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독립군의 독립전쟁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3쪽). 그러나 '노획품' 현황 자료만으로는 무기체계의 구체적인 파악에 많은 한계가 따른다. 무기체계는 우선 병력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군은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기관총, 대포, 수류탄 등 대규모의 무기도 밀반입하였다. 또한 독립군은 체코 부대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 이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사용한 마우저 C96 · 루거 P08 등도 다량으로 수입한 것 기록이 있다. 즉,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무기 보유 현황과 무기의 종류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3. 발표문은 봉오동, 청산리전투를 배경으로 독립군의 무기체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양 전투에는 대한군정서, 대한북로독군부, 대한국민회, 대한북로사령부, 대

한광복단, 대한의민단, 대한신민단 등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체코 부대에서 대량의 무기를 사들인 부대는 대한군정서이고, 군정서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비축했다. 군정서 이외 독립군부대의 무기구입 경로나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가능한지.

4. 발표문의 결론에서 “독립군은 미국에서 생산한 소총으로 봉오동과 청산리 등에서 전투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는 주장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 의미는 미국이 청산리전투의 승전에 “기여” 했다는 확대 해석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쭙는다.



시베리아내전과 독립군

윤 상 원 (전북대 사학과)

〈 목 차 〉

1. 머리말
2.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내전
   1) 시베리아내전의 시작
   2) 체코군단의 봉기와 백군의 진격
   3) 일본군의 시베리아출병
   4) 한인사회당 적위군의 하바롭스크 방어전투
3. 내전의 추이와 연해주 4월참변
   1) 콜차크 정부의 몰락
   2) 체코군단 가이다 봉기와 한창걸
   3) 연해주 4월참변
4. 연해주해방전쟁
   1) 원동공화국과 정전협정
   2) 이만전투와 한운용 부대
   3) 내전 종결과 연해주 해방
5. 맺음말

1. 머리말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3.1운동은 “전민족적, 전민중적 항쟁”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은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다만 100주년의 와중에 3.1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에는 누구나와 다름없이 공감하면서도,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을 3.1운동으로 치환하는 역사인식을 ‘3.1운동 환원론’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한데 묶어 기념사업회를 조직한 일이다. 그 이면에는 3.1운동으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1920년대 초반 간도와 연해주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의 역사에도 ‘3.1운동 환원론’은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3.1운동의 평화적 성격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이 간도로 망명하여 독립군 부대에 투신을 하고, 그 힘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라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인식이다. 3.1운동이 해외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해외의 무장투쟁을 3.1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는 인식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91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독립군 기지 건설은 차치하고라도, 3.1운동 시작으로부터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수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같은 대규모 전투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힘들다.

1920년 6월에 봉오동에서 그토록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고 부대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 독립군 부대의 조직은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가 현실적 힘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령 연해주와 중국령 간도는 지역적으로 한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1920년대 초반 중국령 간도와 러시아령 연해주에서 전개된 무장독립투쟁의 시작을 1917년 러시아혁명과 뒤이은 시베리아내전에서 찾고자 한다. 내전 기간에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한인들의 무장투쟁이 간도에서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얘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베리아내전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 활동한 한인들의 움직임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러시아혁명과 시베리아내전

1) 시베리아내전의 시작

1917년 2월(서력 3월 8일) 제정러시아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시작된 러시아 혁명의 바람은 시베리아와 원동 연해주에도 불어닥쳤다. 1917년 3월 4일(서력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노동자병사소비에트 제1차 대회가 소집되어 소비에트 집행위원회를 선출했다. 소비에트는 하바롭스크, 우수리스크 등 연해주 각 지역에서 연이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같은 시기 현지의 부유층들도 자신들의 권력기관을 조직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젬스트보, 증권산업위원회, 협동조합의 대표자들은 3월 17일(서력 3월 30일) 집회를 열어 부르주아권력기구인 '사회안전위원회'를 조직했다. 사회안전위원회는 케렌스키(А.Ф.Керенский)를 수반으로 하는 러시아임시정부를 지지했다. 이리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소비에트와 사회안전위원회의 이중권력체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원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80]

이런 가운데 1917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1차 원동지방소비에트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러시아 원동지역을 관할하는 소비에트원동지방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소비에트는 볼세비키와 멘세비키 그리고 사회혁명당원들로 이루어졌다. 그 안에 볼세비키는 소수였고, 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항해 러시아임시정부도 원동지방에 대한 통치권 장악에 나섰다. 임시정부는 루사노프(А.Н.Русанов)를 원동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하바롭스크로 파견했다. 그는 아무르주, 연해주, 자바이칼주의 각 사회안전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

1917년 10월(서력 11월 7일) 페트로그라드에서 볼세비키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0월사회주의혁명이 발발한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의 파도는 즉각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갔다. 러시아 원동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17년 12월 하바롭스크에서 제3차 원동지방소비에트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원동지방소비에트를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에서는 볼세비키가 다수를 차지했다. 2월혁명 이후 망명지인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볼세비키인 크라스노쇼코프(А.М.Краснощёков)를 수반으로 하고 한인 여류혁명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이 외무위원을 맡은 원동소비에트정부가 수립되었다.[81] 마침

80) Ким Сын-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 цев*, изд. наука, Алма Ата, 1965.(정태수 편역, 『소련한족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76-77쪽)

내 볼세비키가 러시아 원동지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매우 불안정한 기반위에 서 있었다. 곧 제국주의 열강은 혁명 러시아에 대한 간섭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고무받아 러시아내 백군세력이 소비에트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 전역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내전은 크게 3방면에서 벌어졌다. 무르만스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러시아의 유데니치(Н.Н.Юденич), 볼가강 유역인 남부러시아의 데니킨(А.И.Деникин), 그리고 시베리아의 콜차크(А.В.Колчак)가 소비에트정부에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킨 대표적인 백군 지도자였다.[82] 이 중 시베리아내전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7년 10월혁명이 일어나자 시베리아 중심부 톰스크(Томск)에서는 포타닌 등이 시베리아지방의 독립과 자치를 도모하며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시베리아내전은 1918년 2월 레닌정부가 브레스트에서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18년 5월 유럽러시아로부터 원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던 체코군단이 레닌정부에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키자 이에 고무된 시베리아 각지의 백군들은 통일을 도모하여 그해 7월 11일 옴스크(Омск)에서 시베리아정부의 수립을 선언했다. 이 정부는 5명의 집정관으로 이루어진 집단지도체제를 취했는데 그해 11월 중순 집정관 중 한명인 육해군장관 콜차크 중장이 통일을 명분으로 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헌정의회 개설, 볼세비키 소탕, 재정정리 등을 당면과제로 내세운 콜차크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 아래 그 기초를 굳게 했고, 또한 열강에 대한 러시아의 채무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워 열강의 승인을 얻어 전시베리아에서 최고통치권을 획득했다. 이리하여 서에는 레닌정권, 동에는 콜차크정권의 시대가 왔다.[83]

한편 러시아 원동 연해주에서는 6월 29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데르베르(П.Я.Дербер) 등 사회혁명당계의 시베리아정부가 수립되었다. 7월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도시인 그로데코보에서 제정러시아 중동철도장관인 러시아육군중장 호르바트(Д.Л.Хорват)와 우수리카자크 아타만(Атаман, 대장)인 칼미코프(В.М.Калымыков), 블라디보스토크 체코군사령관 데이데리스크가 회합하여 원동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데르베르의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정부와 호르바트의 그로데코보 원동임시정부는 모두 옴스크의 시베리아정부를 지지

81) Б.И.Мухаче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е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и*(『알렉산드르 끄라스노쇼꼬프, 역사적 전기』),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8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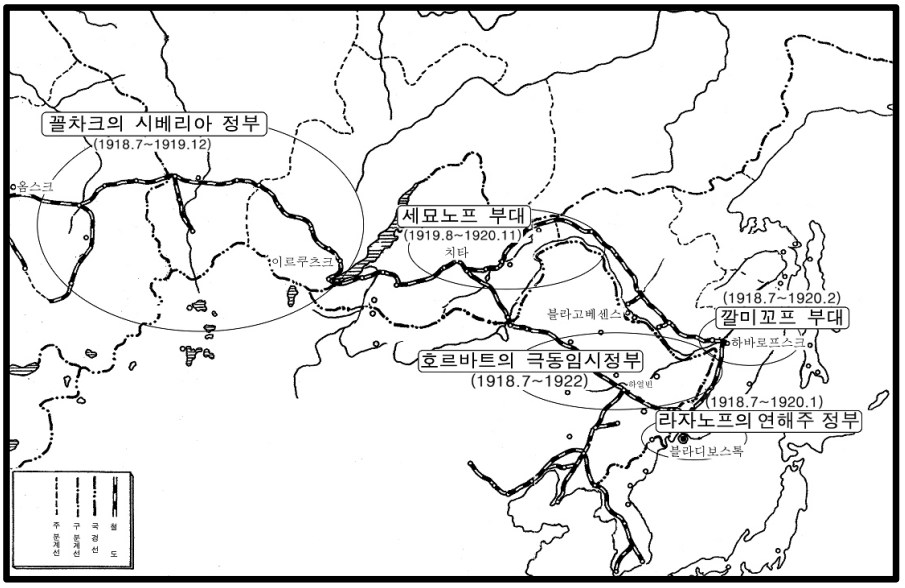
82) 러시아혁명 이후 내전에 대해서는 E.H. Carr, *A Hitory of Soviet Russia,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vol.1, London, 1954, p.286-365 참조.

83) 憲兵司令部, 『西伯利出兵憲兵史』, 東京:國書刊行會, 1976, 14-15쪽.

하며 경쟁했으나 옴스크정부가 호르바트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원동연해주의 실권은 호르바트에게 돌아갔다. 호르바트는 9월 30일 원동임시정부를 옴스크 시베리아 정부에 통합시키고 자신은 옴스크정부의 원동총집정관 및 중동철도지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또한 자바이칼주에서는 그 지역 카자크 아타만인 세묘노프(Г.М.Семёнов)가 치타에 주둔하여 소비에트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세력을 확산했다. 이후 콜차크는 세묘노프를 자바이칼주 군무지사로 임명했다.[84]

이렇게 하여 러시아원동지역은 꼴차크 제독의 옴스크정부를 지지하는 세 백군부대에 의해 분할되었다. 치타를 중심으로 하는 자바이칼지역의 세묘노프 부대, 하바롭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리와 아무르지구의 칼미코프 부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에 이르는 중동철도 연선의 호르바트 부대가 그것이다.

〈그림〉 시베리아내전 초기 백군의 활동지역



2) 체코군단의 봉기와 백군의 진격

초기 시베리아내전의 향방을 결정지은 중요한 사건은 체코군단의 봉기와 이에 따른 제국주의 열강의 내전 간섭이었다. 그렇다면 시베리아내전 초기국면을 주도한 체코군단은 무엇인가?

84) 憲兵司令部, 위의 책, 10-12쪽.

체코는 16세기 초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도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동맹군으로 참가했다. 그런데 이들 중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된 병사들은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의용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거주하고 있던 체코인들도 가담하여 그 병력이 5만에 이르러 1개 군단을 창설하고 키예프 부근에 집결했다. 그런데 1918년 2월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내에서 더 이상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전투를 할 수 없게 된 체코군단은 파리에 있던 체코임시정부를 통해 이후 프랑스로 이동해 독일군과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3월 프랑스정부의 주선 하에 러시아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나 그들의 귀환로는 유럽 쪽 국경이 아니라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을 경유하는 우회로였다. 1918년 4월 1일 키예프를 출발한 체코군단은 60여개의 부대로 나누어 시베리아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들의 수송은 원래 5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수송상 어려움으로 인해 6월 초순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인원은 1만 4천명에 불과했다. 즉 1918년 5월 당시 5만여 명의 병력이 펜자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철도 연선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 형상이었던 것이다. 그 중심지는 옴스크와 첼랴빈스크였다.[85]

그런데 이들은 그해 5월 수송상의 이유로 무장해제를 명령한 소비에트정부에 반대하여 볼가강 중류와 시베리아의 수용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위해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독일 및 오스트리아군과 싸운다고 선언한 후 일정지역을 점령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처한 체코군단은 독일과 정전협정을 맺은 소비에트적군과도 자연적으로 전투를 벌였다. 이에 6월 4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의 외교대표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체코군단이 이제는 연합군이라는 것과 연합군들의 보호아래 있음을 천명했다.[86] 기왕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던 체코군은 원래 7월 1일 유럽으로 호송될 예정이었으나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동료들의 반란 소식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 6월 29일 반란을 일으켜 블라디보스토크소비에트를 붕괴시키고 백군과 합류하여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가서 시베리아내전의 주력으로 참여했다.[87]

1918년 6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수하노프(К. А.Суханов)가 지도하던 블라디보스토크소비에트가 붕괴하고 사회혁명당원 데르베르를 수반으로 하는 시베리아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88] 미국, 일본, 프랑스,

85) 憲兵司令部, 위의 책, 12쪽.
86)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о приморье(1918-1922)*(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Москва, 1962, 18-19쪽.
87) 憲兵司令部, 앞의 책, 12쪽.
88)「海港 陷落」,『독립신문』, 1920. 2. 3, 4면.

영국 등 제국주의 열강은 곧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백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바롭스크 원동소비에트정부에서는 7월 4일 소비에트를 방어하기 위한 전투에 돌입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백군과의 전투를 시작했다.[89] 7월 15일 원동소비에트정부는 징집령을 발포하여 새로운 병력을 충원함으로써 스파스크 일대에 전선이 형성되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백군과 소비에트적군의 전투는 8월 23일 일본군을 주력으로 하는 제국주의간섭군이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급격히 백군의 우세로 돌아섰다.[90] 일본군과 미군의 원조를 받은 백군은 칼미코프의 지휘아래 하바롭스크 공격에 착수했다.

하바롭스크 원동소비에트정부는 방어전에 나섰다. 그러나 9월 4일 하바롭스크는 백군에게 점령당했다. 원동소비에트정부는 하바롭스크를 떠나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원동소비에트정부의 외무위원이던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는 아무르강에서 백위군에게 체포되어 9월 16일 처형당했다.[91] 블라고베센스크로 이전한 원동소비에트정부는 9월 12일 회의를 열고 비합법활동으로의 전환과 빨치산투쟁의 준비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92] 이 결정에 따라 하바롭스크와 아무르주 일대에서 백군과 제국주의 간섭군에 대항하는 빨치산부대들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시베리아철도 연선의 도시지역을 점령한 백군들과 적군빨치산들 사이에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3) 일본군의 시베리아출병

체코군단의 개입과 함께 시베리아내전 초기의 향방을 결정지은 것이 제국주의열강의 간섭이었다. 제국주의열강이 러시아혁명에 개입했을 때,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무력간섭을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1918년 1월 12일 군함 이와미(石見)를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병했다.[93] 뒤이어 순양함 아사히(朝日)가 증파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총영사 菊池義郎은 입항 목적이 '일본거류민들을 보호' 하는데 있으며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 이라고 블

89) *Воззвание*(호소문), РГДВИА ф.341, оп.1, д.1, с.33. 이 호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적위군 부대의 일원으로 모두 일어나 전선으로 급히 가십시오. 혁명의 불구대천의 적들을 절멸시킵시다. 동지들이 자신의 집, 아내, 자식, 자유와 노동권을 보호하려 한다면 누구도 집에 남아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두 무기를 잡으시오."

90) Б.И.Мухачев, Там же(알렉산드르 끄라스노쇼꼬프, 역사적 전기), с.85-90,

91) 뒤바보, 「金알렉산드라傳(續)」, 『獨立新聞』, 1920. 4. 22, 3면.

92) Б.И.Мухачев, Там же(알렉산드르 끄라스노쇼꼬프, 역사적 전기), с.95,

93) 재밌는 사실은 이와미(石見)가 러일전쟁 당시 대한해협에서 일본해군이 러시아 발트함대로부터 전리품으로 획득한 함정 21척 중 가장 큰 전함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많은 전함을 러시아에 반환했지만 '아룔(Орёл, 독수리)'라는 옛 이름을 가진 이 전함은 반환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정러시아의 문장이었던 독수리를 이름으로 삼았던 이 전함을 10여년이 지난 후 다시 러시아 정복의 첨병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原暉之, 『シベリア出兵, 革命と干渉 1917-1922』, 1989, 176쪽.

라디보스토크시 젬스트보에 통고했다.[94] 이어 영국과 미국도 군함을 파견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는 연합국의 군함들이 그 위용을 드러내며 자웅을 겨루고 있었다.[95]

마침내 1918년 4월 5일 밤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다.[96] 전날인 4월 4일 일본 수출입사무소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에 '미지의 악한들에 의한 비밀공격' 이 감행되어 일본인 1명이 살해되고 2명이 부상당한 사실을 트집잡은 것이었다.[97] 일본 분견대를 지휘하던 가토오(加藤) 제독은 "일본의 생명, 재산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륙했다는 성명을 냈다. 소비에트정부는 즉각 페트로그라드에 주재하는 연합국 대표단에게 '전혀 날조된 도발행위' 라고 항의했다. 4월 7일 레닌은 블라디보스토크소비에트에 "사태는 극히 심각하므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 을 전문으로 경고했다.[98]

이어 1918년 5월 체코군단의 반란이 일어나고 6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이 봉기하여 소비에트정권을 무너뜨리자 7월 8일 미국은 체코군 구원을 위해 함께 출병할 것을 일본에게 제의했다. 이미 4월에 육전대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시켰던 일본은 곧바로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미국의 제의에 찬동하는 한편 8월 2일 "체코군대를 구원하고, 러시아 및 러시아인민과 항구적인 우호관계를 새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연합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파병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공략적 또는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속히 철병" 하겠다는 告示를 발표하며 시베리아 출병선언을 했다.[99]

원래 일본과 미국은 협정을 통해 각각 1만 2천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했다. 나머지 열강들은 이보다 적었다. 그러나 일본은 협정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미국은 8월 3일에 무력간섭에 참가한다는 공식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8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을 개시했다. 일본군은 이미 약 2만 8천명의 병력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 배치했다. 영국 역시 8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증원부대를 상륙시켰으며 뒤이어 6,000명의 캐나다군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8월 10일에는 프랑스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여 1918년 8월까지 연합국의 시베리아 출병은 일단락되었다.[100] 러시아 측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94)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자료로 본 일본의 간섭), Москва, 1934, с.5.
95) 憲兵司令部, 앞의 책, 48쪽.
96)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자료로 본 일본의 간섭), Москва, 1934, с.6-8.
97) 김승화는 이 살인이 완전했다는 점이 이것이 무력간섭을 유도해 내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의도적인 연출이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Ким Сын-хва, 앞의 책, 84쪽)) 일본인 연구자인 原暉之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그는 "대응 자체에 모략의 의혹이 있는데", "진상은 결국 유야무야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原暉之, 앞의 책, 217쪽.
98)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권, 청계출판사, 1967, 93쪽.
99) 憲兵司令部, 앞의 책, 49-50쪽.
100)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95쪽. 8월 12일 하룻동안에만도 1만 6천명의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다.

일본군은 처음에 12사단을 파견하고, 다음에 7사단과 3사단을 파병하여 전부 7만 명 이상의 병력이 시베리아와 원동 연해주에 주둔했다고 한다.[101] 일본군이 제국주의간섭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베리아 출병 초기 일본군은 3개 보병사단을 주력으로 하바롭스크 일대의 칼미코프 부대와 자바이칼 방면의 세묘노프 부대를 지원하며 내전에 참가했다. 그리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이칼호수 동쪽 베르흐네우딘스크까지 철도 연선을 따라 크고 작은 도시들에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상해임시정부 기관지『獨立新聞』에 실린 "日本은 세묘노프 갈미고프 兩將軍을 夾하고 貝湖 以東의 權利를 獨占코져 하며"[102]라는 기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상에서 보듯 시베리아내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병력을 가장 오랫동안 파견했던 제국주의국가가 일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지역 한인들이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소비에트적군 편에 서서 싸우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4) 한인사회당 적위군의 하바롭스크 방어전투

1918년 4월 28일(서력 5월 11일) 창립된 한인사회당은 중앙위원회 안에 조직부, 선전부, 군사부의 3개 집행부서를 설치하고 당원모집, 지부조직, 주의선전, 지원군 적위부대 편성에 전력을 기울였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이동휘, 부위원장 오바실리, 군사부장 유동렬, 조직부장 이한영, 재무 · 선전부장 이인섭이 선임되었다.[103]

한인사회당은 군사부의 사업으로 군사부장 유동열의 주관 아래 무장부대 편성사업을 전개했다. 먼저 원동소비에트 당국의 지원으로 유동렬을 책임자로 하는 사관학교가 하바롭스크에 설립되었다. 당시 西間島 柳河縣에 설치되어 있던 사관학교의 생도들을 이동시켜 여기에 편입시키기로 했으며, 홍범도가 이끌던 무장부대도 하바롭스크로 이동하기로 약속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18년 6월 말 서간도에서 온 50-60명과 다반 등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모집한 한인청년 등 100여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한인사회당 적위군이 조직되었다.[104]

미국 국방장관 뉴톤 베이켈이 1919년 9월 15일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행한 보고에 따르면 연해주와 시베리아 파병된 제국주의 열강의 병력은 일본군이 6만명 이상, 미군이 9000명, 영국군 1500명, 이탈리아군 1500명, 프랑스군 1100명이었으며, 약간의 중국군, 루마니아군, 폴란드군이 있었다고 한다.

101)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자료로 본 일본의 간섭), Москва, 1934, с.8-9.

102)「日本의 癡夢」,『獨立新聞』, 1919. 11. 8, 2면

103) 이인섭,「한인사회당」,『이인섭 친필 노트』35권, 77-78쪽.

104) 이인섭은 한인사회당 적위군의 조직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18년 5월 중순이였다. 남만에서 사관학생 55명이 송화강 중국 상선을 타고서 당도하여 극비밀에 부치고 그들을 베리단으로 무장시키고 우리도 모다 무장하였다. 그들은 목총을 가지고 만주에서 조련하다가 베리단을 바다가지고 사격연습장에 나가서 실탄으로 사격하며서 이제는 왜놈들을 만내면 이러케 쏘갇다고 하였다. 그 후에 Хабаровск 근방에 있든 청년들은 자원하여 사관학교로 차자오긔 시작하였고 간부들은 학생모집을 떠났는데 리한영은 흑하 Амур주로 이만 있던 허해는 중국 요하현으로 떠났다. 우리 사관학교 근방에는 Венгерия 체흐 그타 합동부대들이 떠나고 비였

그런데 1918년 6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코군의 봉기가 일어나 연해주 일대가 백군의 점령 하에 들어간 후, 우수리 카자크 아타만 칼미코는 일본군의 원조를 받아 북진하여 하바롭스크 공격에 착수했다. 유동열과 전일이 이끄는 한인사회당 적위군은 원동소비에트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어전에 참가했다.

한인사회당 적위군이 참가한 전투는 하바롭스크 남쪽 이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인섭은 이만전투에 일본군이 등장했다고 회고한다. 한인사회당 적위군들은 이만전투에서 일본군이 나타나자 러시아 군지도자들의 명령을 위반하고 "왜놈을 죽이고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며 단병접전에 뛰어들어가려고 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105] 이만에서 퇴각할 때 서간도에서 왔던 부대원들은 "최후 한사람까지 왜놈들을 잡아 치우겠다" 고 하며 후퇴대열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106] 뱌심스크(Вясимск)를 거쳐 크라스나야 레츠카(Красная речка)까지 퇴각한 한인사회당 적위군과 소비에트 적군은 크라스나야 레츠카 지구 전투와 하바롭스크 시가지 전투에서 칼미코프 백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그러나 적군은 처참히 패배했다. 한인사회당 적위군도 거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9월 4일 하바롭스크는 백군에게 점령되었다.[107]

살아남은 한인사회당 적위군 부대원들은 아무르강을 따라 블라고베센스크로 퇴각했다. 이인섭의 회고에 따르면 한인부대원들은 아무르강에서 기선을 타고 몽고와 중국 신강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고자 했다고 한다. 그들은 거기서 모스크바의 레닌정부와 연락을 취해 전열을 재정비한 후 다시 원동으로 진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부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108] 이인섭 등 한인 12명은 알렉산드라 김을 비롯한 하바롭스크 원동소비에트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Барон-Корф(꼬르프 남작)" 호를 타고 블라고베센스크로 퇴각하다 백위군에 체포되었다. 이인섭 등은 알렉산드라 김이 마련해 준 중국여권을 이용해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탈출에 성공했지만 백군에게 체포된 알렉산드라 김은 9월 16일 하바롭스크에서 처형당했다.[109]

한인사회당 적위군은 2개월여의 짧은 기간 존재했지만 러시아원동지역 한인들

든 병영들을 차지하였다. 리동휘, 류동렬은 중국군대에서 복무하는 리용, 채영, 최명옥, 신청천, 한운용 그타들을 사관학교로 오라고 서신과 전보로 독촉하였다."(이인섭, 「한인사회당」, 『이인섭 친필 노트』 35권, 78-79쪽)

105) 이인섭, 「우쑤리전선」, 『이인섭 친필 노트』 35권, 80-100쪽. 이 전투에 안중근의 사촌동생이면서, 안명근의 친동생인 안홍근도 참가했는데 이인섭은 그의 전투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당시 전투에서 안홍근 동지가 왜놈만 뵈이면 '내의 형 안중근과 명근에 원수을 갑갇다'고 하며 대오에서 뛰여나가던 현상은 지금에도 보이는 듯하다."

106) 위의 자료.

107) Б.И.Мухачев, *Александр Краснощеков, Истор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и*(알렉산드르 끄라스노쇼꼬프, 역사적 전기), Владивосток, 1999, с.95,

108) 이인섭, 「망명자의 수기」, 103쪽.(『해외독립운동자료 러시아편(12)』, 국가보훈처, 2007)

109) 뒤바보, 「金알렉산드라傳(續)」, 『獨立新聞』, 1920. 4. 22, 3면.

이 백군과 일본군을 비롯한 제국주의간섭군에 맞서 싸운 최초의 조직적 투쟁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조직적 투쟁의 경험은 이후 한인사회당이 신민단과 통합하여 다시 한 번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3. 내전의 추이와 연해주 4월참변

1) 콜차크 정부의 몰락

러시아백군과 제국주의간섭군 그리고 체코군단을 한편으로 하고 소비에트적군과 빨치산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치열하게 전개되던 러시아내전은 19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볼세비키편으로 기울어갔다. 제국주의간섭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은 1919년 4월 러시아내전의 수레바퀴를 돌려놓은 볼가강회전에서 소비에트적군에게 패배했다. 유럽러시아와 러시아 남서부에서 위력을 떨치던 유데니츠군과 데니킨군도 그해 10월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시베리아에서는 1918년 7월 11일 옴스크에서 조직되었던 콜차크의 시베리아임시정부가 1919년 11월 14일 소비에트적군에게 옴스크를 내주고 이르쿠츠크로 퇴각했다.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소비에트적군과 빨치산부대는 백군과 제국주의간섭군에 대항해 대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승세는 점차 소비에트적군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시베리아에서 패전을 거듭하던 꼴차크군은 마침내 1920년 1월 4일 사회혁명당계에 이르쿠츠크를 내주었고 콜차크는 2월 7일 소비에트적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더불어 1920년 1월 31일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 백파정권이 무너졌다. 백파정부의 수반 라자노프는 일본으로 망명했고 사회혁명당, 멘세비키와 볼세비키가 연합한 연해주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을 비롯한 제국주의간섭군은 중립을 유지했다. 그런 가운데 그간 러시아 적군빨치산의 영웅으로 등장한 세르게이 라조(С.Г.Лазо)를 수반으로 한 군사소비에트가 조직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실권은 볼세비키에게 넘어갔다.[110]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한 소비에트적군은 북쪽으로 진격하여 하바롭스크를 탈환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도시를 포위하고 전개된 10여 일간의 전투 결과 2월 16일 마침내 하바롭스크를 점령했다.[111] 하바롭스크로부터 도망친 칼미코프는

110) 「연해주에서 쏘베트주권을 위한 투쟁」, 『연해주어부』, 1932. 11. 5, 3면.

111)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о приморье(1918-1922)*(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Москва, 1962, с.176.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카자크인 40명을 사살하고 36부드(б у д, 1부드는 약 16kg)의 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다.[112]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중국인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113] 칼미코프의 최후에 대해 하바롭스크 해방전투에 참가했던 다반부대원 박춘봉은 그가 중국령으로 넘어오자 미리부터 그곳에 자리잡고 있던 中朝 혼성빨치산부대가 사로잡아 그 자리에서 1918년 9월 그에게 사살된 알렉산드라 김의 원수를 갚는다고 선언하고 처단했다고 회상하고 있다.[114]

2) 체코군단 가이다 봉기와 한창걸

한편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남아있던 체코군단은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이 성립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국가로 수립되게 되자 1919년 말 고국으로 귀환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연합군의 원조 하에 12월 이후 철로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든 체코군은 1920년 2월부터 9월 사이에 모두 유럽으로 귀환했다.[115]

이때 고국으로 귀환하던 체코군은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암시장에 내놓았다. 이 소식을 들은 연해주와 북간도의 한인들은 체코군단으로부터 나온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무기 구입대를 파견하였다.[116] 이때 체코군단으로부터 사들인 무기는 주로 러시아제와 미제 무기였으며, 일본제 무기도 있었다. 일본에 대항한 독립전쟁에서 체코군단으로부터 일본제 무기를 사들여 전투를 치룬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소비에트적군과 빨치산들이 백군을 몰아내고 체코군 역시 귀환함으로 인해 출병의 명분마저 없어진 제국주의간섭군은 차례로 시베리아로부터 떠나갔다. 1920년 1월 16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국은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한 봉쇄의 해제와 시베리아로부터 자국 군대의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도 그 뒤를 따랐다.[117]

체코군이 귀환하기 전 연해주의 형세를 급변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1918년 5월 봉기한 이래 시베리아일대를 백군이 점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백파정권에 반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919년 11월 17일 밤 체코군의 총사령관이던 가이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라자노프(C.H.P

112) Ким Сын Бин, *Очерк партиз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 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김승빈, 『원동 한인빨치산운동 개관』), 1981, c.9.
113)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Там же(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c.176.
114) 박춘봉, 「다반빨지산대, 1958. 1. 30」,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59-63쪽.
115) 憲兵司令部, 『西伯利出兵憲兵史』, 東京:國書刊行會, 1976, 20쪽.
116) 「機密 第9號, 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0. 1. 29, 『在西比利亞部』 9권, 11항.
117) 「쁘롤레따리아트독재를 위한 투쟁에서의 원동의 볼세비크들」, 『당교육』, 1933. 1. 20, 3면.

о з а н о в)의 백파정권에 반대해 군사적인 행동에 돌입했다.[118] 그러나 체코군의 봉기는 일본군과 미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에 의해 곧 진압되었고[119] 가이다는 체포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체코군의 봉기는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가 백군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동안 볼세비키에 반대하여 콜차크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는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꼴차크정부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스스로 정권을 쥐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가이다 장군의 봉기에 한창걸을 비롯한 연해주의 한인들도 참가했다. 1918년 러시아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와 수찬에서 한인들과 함께 수찬군대를 조직해 백군 및 제국주의간섭군과 전투를 벌여오던 한창걸은 1919년 8월 수찬군대를 해산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한인부대를 재조직했다. 이 부대가 11월 17일 밤 가이다 장군의 봉기에 참가한 것이다. 한창걸은 봉기군의 기관포 대장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봉기는 실패했고 한창걸과 그의 동지들은 사살당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한인들은 일본헌병대로 넘겨져 일본인들로부터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120] 한창걸은 자신이 가이다 장군의 봉기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왜 붉은 한인 빨치산부대가 가이다 장군의 부대에 합류했는가? 그것은 이 부대가 꼴차크에 반대하기 때문이었다. 단지 우리가 미워하는 꼴차크 전복을 지향한다는 것 뿐, 우리는 물론 모든 사회당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었다. 가이다 봉기는 실패했으며 우리 부대는 모두 포로가 되었다. 나는 한창걸이 아니라 조선신민이라고 가장했다. 포로가 된 후 한인 빨치산부대는 일본인들 측으로부터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이 고문들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여 1920년 1월까지 한인 빨치산부대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1920년 1월 30일 나는 다른 포로들 틈에 끼어 탈출했다.[121]

즉, 체코군 가이다 장군과 주의와 사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백파정권을 전복한다는 전술적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에 봉기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창걸은 블

118) 체코군 총사령관 가이다 장군은 육군 소위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제정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1918년 시베리아에서 체코군이 봉기할 때 총사령관이 되었던 1920년 당시 28세의 청년장군이었다. 가이다 장군은 이후 꼴차크 정부와 대립하여 1919년 11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연해주에서 추방되어 체코로 돌아갔다. 「까이다 將軍 訪問記」, 『독립신문』, 1920. 1. 13.

119) 체코군 봉기의 진압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역할에 대해 이인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힌파와 일軍들은 미국군대에서 탐조등으로 暴動者을 환하게 비처주워서 大砲와 긔관砲로 100여명을 전방에 총살하고 400餘명을 전투 후에 총살하고 포로者들을 혹독하게 취조하엿다." (이인섭, 「수찬지대 빨찌산대」, 『이인섭 친필 노트』 7권, 17-24쪽)

120) 「機密 第9號, 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0. 1. 29, 『在西比利亞部』 9권, 11항.

121) Хан Чан Гер, Там же(한창걸, 「원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라디보스토크에서 조직한 한인부대가 지하활동을 하고 있던 한인사회당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주장했다.[122] 그런데 이인섭은 한창걸이 가이다 장군의 봉기에 참가한 것이 대한국민의회의 선동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혁명당의 지도를 받은 한명세[123]가 "만일 에세리(사회혁명당 – 필자)가 主權을 잡으면 조선이 大隊을 조직하는 것을 허락하여 일군을 조선農村에서 逐出하고 平安히 살게 된다"고 선동했다는 것이다.[124] 이는 일본의 정보보고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일본 정보당국자들은 봉기에 한인들이 참가한 것은 김하석, 이용, 김만겸 등이 가이다와 교섭한 결과 모집하여 파견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125] 당시 한인사회당이 봉기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가이다 봉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한창걸을 비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봉기 참가에 대한국민의회가 관계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126]

이때 일본헌병대에 수감되었던 한창걸을 비롯한 한인 11명은 2달 후인 1920년 1월 30일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정부가 붕괴하고 연해주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새롭게 조직된 군사소비에트 수반 세르게이 라조에 의해 석방되었다.[127] 석방된 한창걸은 블라디보스토크 군사소비에트로 가서 라조와 일류호프를 만나 그들로부터 한인 빨치산부대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았다.[128] 며칠 후 부대는 300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어 니콜라예프카 마을에 배치되었다. 한창걸이 부대 사령관이었다. 부대는 쉬코토보 마을로 이동하여 제1원동소비에트연대의 한 대대가 되었다. 쉬코토보에서 부대는 피복과 무장을 공급받고 병영에 주둔했다.[129]

3) 연해주 4월참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군대가 1920년 초에 시베리아를 떠났지만 일본군은 여전히 남았다. 일본군은 단지 체코군의 귀환만을 처리하겠다며 내전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시베리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뿐 아니라 조선을 지배하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도 시베리아를 일정한 통제 밑

122) 위와 같음.
123) 한명세는 당시까지 사회혁명당원이었다. *Автобиография члена партии Хан Менше Андрея Абрамовича,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к партийной перерегистрации в 1921г.(карт. No.905734)*(당원 한명세의 자서전, 1921년), АВПРФ, ф.146, оп.4, попка 103, д.13, лл.246-247.
124) 이인섭, 「수찬지대 빨찌산대」, 『이인섭 친필 노트』 7권, 17-24쪽.
125) 「機密 第2號, 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0. 1. 8, 『在西比利亞部』 9권, 5항.
126) 이후 한창걸은 한인사회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대한국민의회의 인물들과 가깝게 지냈다.
127) 「機密 第11號, 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0. 2. 14, 『在西比利亞部』 9권, 15항. 이 때 수감되었던 한인 11명 중에는 한창걸을 비롯 그의 동생 한성걸과 배능백, 김하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128) 한창걸은 이 때 전소련공산당(볼세비키)의 당원이 되었다. (Хан Чан Гер, *Биография*(이력서), Ного-Киевск, 1935. 5. 9)
129) Хан Чан Гер, Там же(한창걸, 「원동내전에 한인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한 회상」).

에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은 오래가지 못했다. 1920년 4월 4일 일본군은 尼港事變을 구실로 연해주 전역에서 소비에트적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했다. 이 공격은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오던 것이었다. 니콜라라예프스크-나-아무레에서의 군사적 패배와 민간인 피살사건(소위 尼港事變)은 시베리아를 장악하려는 강경파에게 좋은 구실을 주었다. 일본은 연해주로 군대를 증파했다. 일본군사령부는 1920년 3월중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기타 연해주 도시에 있는 적군 빨치산부대에 대한 전면 공세를 준비하도록 비밀리에 명령했다.[130]

공격은 4월 4일 밤 시작되었다. 이조차도 일본군은 러시아군의 기습에 대한 반격이라고 주장했다.[131] 그날 밤 일본군은 전함 탐조등이 공격목표지점을 비추는 속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중심부의 공공기관에 대포사격을 감행했다. 이때부터 5일 새벽까지 연해주와 아무르주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스파스크, 하바롭스크, 쉬코토보, 포세트 등 러시아 원동 일대에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공산당 원동국 위원이자 연해주 군정위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소비에트의 수반이던 세르게이 라조 역시 체포되어 살해되었으며[132], 하바롭스크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20명 이상의 한인을 포함하여 2,500명 이상이 살해되고 부상당했다.[133] 연해주 일대는 다시 한 번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해 5월에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메르쿨로프의 임시프리아무르정부가 수립되었다.[134]

4. 연해주해방전쟁

1) 원동공화국과 정전협정

한편 시베리아에서 콜차크정부가 붕괴되고 난 후 1920년 4월 6일 이르쿠츠크에 極東共和國이 수립되었다.[135] 이전 하바롭스크 원동소비에트정부의 수반이었던 크라스노쇼코프가 수상 겸 외상으로 취임했다.[136] 부르주아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원

130) 憲兵司令部, 앞의 책, 501-502쪽.

131) 「電報譯, 日本軍か新韓村の露軍を擊破する不逞鮮人を逮捕する件」, 1920. 4. 8, 『在西比利亞部』 9권, 50항.

132) 「老兵 金規勉 備忘錄」, 『誠齋 李東輝 全書』 下卷,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34-135쪽. 당시 라조는 함께 체포된 소비에트 간부들과 함께 끌려가 열차 속에 갇힌 채로 화장당했다고 한다.

133) П.П.Постишев,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 на в Сибири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7-1922)*(시베리아와 원동에서 내전), Хабаровск, 1927, ст.25.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전과 기록은 적군 장교 468명, 하사 및 병졸 1612명의 무장해제였다. (憲兵司令部, 앞의 책, 204쪽)

134) 憲兵司令部, 위의 책, 18쪽.

135) E.H. Carr, *A Hitory of Soviet Russia,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1923*, vol.1, London, 1954, p.356.

동공화국은 가능한 한 일본군과의 대결을 피하면서 백군과의 전투에만 몰입하고자 했다. 일단 원동공화국은 영내의 백군을 격파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다른 제국주의간섭군들이 대부분 떠난 상황에서 시베리아에 대규모 일본군 병력이 남아있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큰 부담이었다. 일단 애초 출병의 구실이었던 체코군단이 본국으로 송환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에서 4월 6일 수립된 원동공화국의 존재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머무르는 것을 더욱 힘들게 했다. 표면상 원동공화국은 부르주아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과격파(볼세비키 – 필자) 군대의 절멸"을 위해 재출병했다는 명분 역시 더 이상 내세울 수가 없었다. 결국 1920년 7월 일본군은 원동공화국과의 협정을 통해 하바롭스크를 내어주고 이만을 거쳐 스파스크까지 철수했다.[137] 제13사단과 제14사단을 비롯하여 아무르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들은 모두 일본이나 만주로 귀환했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일본군이 철수하자 세묘노프 백군 부대는 급격히 몰락했다. 10월에 치타를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에게 넘겨준 세묘노프 백군은 11월 20일 최후 근거지였던 다우리야를 빼앗기고 세묘노프 자신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뤼순(旅順)으로 망명했다.[138] 그해 11월 원동공화국은 수도를 치타로 이전했다.[139] 이렇게 하여 1920년 11월 이후 원동러시아지역에는 중앙의 소비에트정부와 연결된 원동공화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연해주의 메르쿨로프의 임시프리아무르정부가 대치하게 되었다.

원동공화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도부는 임시프리아무르정부를 구성한 메르쿨로프 백군을 하루빨리 제압하고 내전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일본군의 철수가 필수적이었다. 원동공화국은 곧 연해주에서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원동공화국은 먼저 임시프리아무르정부와의 사이에 중립지대를 설치했다. 중립지대는 이만 남쪽, 스파스크 북쪽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일본 역시 장기간에 걸친 출병으로 인해 국내외적인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이 끝나고 1920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정부예산을 모험적인 출병정책에 더 이상 지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반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

136) Б.И.Мухачев, Там же(알렉산드르 끄라스노쇼꼬프, 역사적 전기), c.85-90.

137) 『*Японская интервенция 1918-1922 гг. в документах*』(자료로 본 일본의 간섭), Москва, 1934, c.15.

138) 憲兵司令部, 앞의 책, 65-67쪽. 이후 세묘노프는 조선, 일본, 만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일본정보부와 관계를 가지고 소비에트로부터 탈출해 온 백계러시아인들의 반소비에트 활동을 지도했다. 그는 1949년 9월 만주에서 소련군에게 생포되어 소련 대법원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처형되었다. (Большая Россий ская энцик лопедия, Москва, 1969-1978гг.)

139) 憲兵司令部, 앞의 책, 18쪽. 이로 인해 이후 일본은 원동공화국을 치타정부라고 불렀다.

났다.[140] 아울러 대외적으로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압박이 있었다. 이미 1920년 초 시베리아에서 철병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시베리아를 혼자 차지하려고 드는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국은 1921년 5월 31일 "일본군에 의한 東部시베리아의 계속 점령은 同지방에 있어서의 무질서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141]라는 항의 통첩을 보냈다.

이처럼 원동공화국과 일본 사이에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1921년 8월 26일부터 大連會談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기대와는 달리 대련회담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동공화국 측은 시베리아로부터 일본군의 즉시 철병과 소비에트러시아 대표의 회담 참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비에트러시아 대표의 참가를 거부했다. 원동공화국 대표단은 즉각 회담장을 떠났다. 이후 회담 막바지에 일본은 원동공화국에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원동공화국은 육상과 해상에서 무장해제할 것,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할 것, 80년간 사할린 북반부를 조차할 것"[142] 등이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원동에서 일본 상민에게 특별한 이권을 부여할 것과 철병은 조약성립 후에도 석 달 후라야 할 것"[143]이 제기되었다. 원동공화국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회담은 1922년 4월 16일 결렬되었다.[144]

한편, 대련회담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일본군은 백군을 지원하여 원동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도록 했다. 이는 대련회담에서 원동공화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1921년 10월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메르쿨로프 백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시베리아내전의 최후단계인 연해주해방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해주해방전쟁 초기 백군과 일본군은 이만을 점령하고 12월 중순에는 다시 한번 하바롭스크를 점령했다. 그러나 중앙 소비에트정부로부터 제5군이 증파되고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적군빨치산부대들이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을 시작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1922년 2월 10일 볼로차예프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적군은 곧 하바롭스크를 함락하고 4월에는 이만까지 점령했다. 일본군은 더 이상 백군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전에서

140) 「일본 로동쟈의 활동」, 「로동운동쟈가 붓잡히어」, 「얻은 것이 일흔 턱도 못되」, 『로동쟈』, 1922. 7. 15, 2면. 이상의 기사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동직업의회고려부가 발행한 잡지 『로동쟈』 1922년 7월 15일자에 실린 일본에서의 반전운동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시베리아에 출병한 이후 쏟아부은 돈이 6억만 엔에 달한다고 했다.

141) 鹿島守之助, 『日本外交の史的考察』, 49쪽.(金敬泰, 「1925年의 蘇日協約과 소련의 朝鮮政策」, 『韓國史學』 13, 1993, 194쪽에서 재인용)

142) Ким Сын-хва, 앞의 책, 124쪽.

143) 「대련회의의 결렬. 일본정부는 서로 책망」, 『로동자』, 1922. 6. 15, 2면.

144) 「대련회의의 결렬. 일본정부는 서로 책망」, 『로동자』, 1922. 6. 15, 2면.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대련회담의 실패에 대해 외교부와 육군부가 서로의 잘못이라고 싸우고 있다고 했다.

발을 빼는 것이 유리했다. 일본군은 애써 구축했던 요새들을 백군에게 넘겨주고 마침내 1922년 6월 시베리아와 연해주에서 철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145] 철병 시한은 그해 10월말까지였다.[146]

원동공화국 정부에 철병을 통지한 일본정부는 대련에서 중지되었던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1922년 9월 4일 장춘(長春)에서 회담이 열렸다. 이번에는 원동공화국 대표와 더불어 소비에트러시아정부 대표도 참가했다. 이들은 일본군의 전면적 철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위 尼港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북사할린 점령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협상은 결국 21일 만인 9월 25일 결렬되었다.

2) 이만전투와 한운용 부대

원동공화국과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이만에는 대한의용군이 조직되어 있었다. 사령관은 이준의 아들 이용이었으며, 그는 사관양성을 위해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이 교장을 겸임했다.[147] 한운용과 김홍일이 교관으로 있던 사관학교는 6개월 과정으로 약 50명의 생도가 교육을 받았다.[148] 이를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은 3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사령관에는 이용, 1중대장 겸 참모로 임표, 2중대장에 한운용, 3중대장에 김홍일이 임명되었다. 소대장은 김동명, 이빈, 강신우, 박흥, 마춘걸, 마건, 이성춘, 오동명 등이었으며 병력수는 357명이었다.[149] 이렇게 재편된 대한의용군은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연합하여[150] 1921년 12월 초 이만전투를 시작으로 연해주해방전쟁에 투입되어 활약하게 된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북쪽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6연대장 C.세리세프는 전군에 동원령을 발포함과 동시에 대한의용군에게도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용군사의회는 회의를 열어 전투에 참가할 것을 결정하고 1921년 12월 2일 사령관 이용 명의의 동원령을 내렸다.[151] 곧 대한의용군 전 부대가 집합하여 사령관으로부터 출전명령을 받고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함께 전선으로 이동했다.

---

145) 「機密 第124號, 不逞鮮人ノ行動二關スル件」, 1922. 7. 15, 『在西比利亞部』 13권, 107항.
146) 憲兵司令部, 앞의 책, 65-68쪽.
147)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0쪽.
148)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12쪽.
149) 위의 책, 115쪽. 병력수에 대해 최호림도 역시 동일하게 35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Цой -Хорим, Там же (최호림, 「내전 시기 원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2. 대한의용군이 3개 중대 9개 소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개 소대 병력이 40명 안팎이라고 계산할 때 이 숫자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인다. 일본의 정보당국도 이만지역의 한인 군인수가 40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었다. 「公信 第73號, イマン不逞鮮人二關スル件」, 1921. 12. 17, 『在西比利亞部』 13권, 31항.
150) 대한의용군은 C.쎄리쎄프가 사령관으로 있던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6연대와 연합했다.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3쪽.
151)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13-114쪽.

여기에서 "원동해방전의 첫 희생자"[152]이자 "소비에트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원동지역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의 역사에서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를 차지한"[153] 한운용 중대의 이만방어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뛰어난 전과와 희생으로 인해 살아남은 많은 빨치산들의 회고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남겨졌다.[154]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이만전투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자.

1921년 12월 2일 이만으로 진격하고 있던 백군에 대항해 출동하라는 동원령에 따라 대한의용군의 모든 부대는 이만으로 집결했다. 대한의용군은 이곳에서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사령부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다. 이전까지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12월 3일 밤 3개 중대로 이루어진 대한의용군은 전열을 갖추어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함께 백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들은 강행군을 거듭하여 무라뵤프-아무르스키이(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역을 지나 우수리강에 도착했다. 정찰대가 와서 백군이 이미 우수리역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용군 부대와 인민혁명군은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그런데 사령부로부터 전투를 미루고 일단 그라프(Граф) 마을까지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부대들은 곧 철수했다. 인민혁명군은 철도를 따라, 대한의용군은 우수리강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퇴각했다.

인민혁명군의 퇴각을 알아차린 백군은 즉각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정면공격과 함께 철도 연선의 오른쪽으로부터 인민혁명군을 포위하며 이만으로 접근했다.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은 이만과 그라프 사이에서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백군에게 포위당하지 않기 위해 인민혁명군은 빠르게 그라프를 지나 이만까지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용군 1, 3중대와 인민혁명군은 급히 이만으로 향했다. 대한의용군 2중대만이 그라프에 남겨졌다.

12월 4일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5시 대포의 포격과 기관총사격을 앞세운 백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포연이 이만 시가지를 뒤덮었다. 백군의 강력한 공격에

152)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앞의 책, 256쪽.

153) Цой -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원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5.

154) 이만전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Ким Сын-хва, 앞의 책, 126-127쪽);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긔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70-75쪽; *Боевой путь отряда Херсендана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ак Чен Лима*(「원동내전 참가자 박청림이 회고한 혈성단부대의 전투행로」),(В.Д. Ким, *Туманган пограчная река*(국경의 강 두만강), Изд. Узбекистон, 1994), c.33-34; 김규면, 「이만전쟁」,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편』, 정신문화연구원, 181-188쪽; 홍파, 「군비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洪範圖篇』, 111-112쪽; Цой -Хорим, Там же(최호림, 「내전 시기 원동주에서 한인빨치산운동」), c.162-165; 「강우건 유고」, 앞의 책, 1995, 115-121쪽; 강상진, 「군비단약사」(1967. 3. 29), 같은 책, 252-257쪽; 김하경, 「이만빨치산 김하경 회상긔」, 『이인섭 친필 노트』 6권, 22-26쪽; 리종학, 「이만전투」,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46-151쪽; 최계립, 「이만빨찌산대, 최계립 동지 회상기 1958. 7. 16」,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73-184쪽; 김원, 「이만戰役에서 戰死한 韓雲用씨의 略史」, 『이인섭 친필 노트』 9권, 154-155쪽; Ким Сын Бин, *Очерк партиза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18-1922)*(김승빈, 『원동 한인빨치산운동 개관』), 1981, c.24-26.

밀린 인민혁명군은 이만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인 이만철교를 버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혁명군 사령부는 즉각 이만 북쪽 비킨(Бикин)역으로 퇴각했으며, 부대들도 사령부의 뒤를 따랐다. 대한의용군 1, 3중대는 퇴각하는 인민혁명군의 후미에서 철수부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령관 이용의 명령에 따라 이만철교를 지키기 위해 1중대 1소대가 남았다. 아침 7시 백군의 전초부대가 이만철교에 나타났다. 주위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1소대는 그들이 백군인지 인민혁명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백군은 기습적으로 사격을 가해왔다. 소대장 윤동선과 소대 군정위원 주병록, 그리고 2명의 병사가 적탄에 쓰러졌다. 남은 소대원들은 급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곧 비킨으로 퇴각하는 본대에 합류했다. 이만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백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그라프에 남겨졌던 대한의용군 2중대였다. 한운용이 지휘하는 2중대는 본대와의 연락이 끊어진 채 백군의 포위망 속에 남겨졌던 것이다. 그라프에서 밤을 지새운 한운용 중대는 본대를 쫓아 이만으로 퇴각했다. 이들은 이만이 이미 백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운용 중대는 어떤 의심도 품지 않고 대열을 갖추어 이만역으로 접근했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이만을 점령하고 역 근처에 보병과 기병을 배치해두고 있던 백군 역시 역으로 접근하는 부대를 적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도 자신들이 이미 반나절 전에 점령한 이만 부근에 인민혁명군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대를 먼저 알아본 것은 한운용 중대였다. 둘 사이의 거리가 약 200미터 가량 남았을 때 한운용은 이만역에 주둔한 부대가 자신들의 본대가 아니고 백군 부대임을 알아차렸다. 한운용은 즉각 산개하여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운용 중대는 백군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백군은 이 뜻밖의 공격에 당황하여 30분 만에 백기를 올렸다. 한운용 중대는 백군을 포로로 잡고 부상자들을 정돈하면서 전투 정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승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한운용 중대의 뒤를 이어 무라뵤프–아무르스키이역으로부터 약 1,500명에 이르는 백군 부대가 도착한 것이다. 항복하던 백군들은 자신들의 본대를 알아보고서는 들었던 백기를 부러뜨리고 다시 사격을 가해왔다. 한운용 중대는 곧 자신들보다 수십 배 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 전투를 해서는 승산이 없었다.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운용 중대는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곧 적들을 향해 맹사격을 가했다. 백군 측으로부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격소리가 끊어졌다. 탄약이 떨어진 것이다. 한운용 중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약 30여명의 인민혁명군들 중 절반이 항복했다.

그러나 죽더라도 결코 항복하고자 하지 않았던 대한의용군 병사들은 곧 백병전

에 돌입했다. 불행히 그들의 총에는 총검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개머리판으로, 맨몸으로 백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던 그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갔다.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았던 전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대한의용군 2중대원들은 모두 쓰러졌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중상을 입고 동지들의 시체들 속에 파묻혀 있던 중대장 한운용과 소대장 강신우, 분대장 엄관호, 윤상원, 한익현은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정리하던 백군을 향해 마지막 권총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18명의 백군이 더 죽었다. 50여명의 한운용 중대는 전멸했지만 백군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컸다. 백군은 사망자 약 600명에 부상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투가 끝난 후 18군데에 칼을 찔린 채 시체더미 속에 누워있던 마춘걸은 밤이 되자 기어서 이만의 한인 농가들 중 한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그는 곧 이만을 탈출했다. 김치율과 김덕현은 부상당한 상태로 적십자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병원에서 도망하는데 성공했다. 전투 후 3일이 지나고 이만의 한인 주민들은 시체를 거두어 눈 속에 임시로 매장했다. 1922년 4월 6일 인민혁명군이 이만을 탈환한 후 이들의 시체는 동지들과 한인 주민들에 의해 이만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한운용 중대는 마춘걸, 김치율, 김덕현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만전투에서 한운용 중대의 불굴의 투쟁으로 인해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과 대한의용군의 1, 3중대는 후방 비낀지역으로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 이후 한인부대의 용기를 두려워한 백군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대한의용군의 방어선 쪽은 회피하곤 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적군 장교들도 “이르보! 뻬료드!(여보! 앞으로!)” 라는 대한의용군의 구령을 배워 사용하곤 했다고 한다.[155] 즉 맞서는 부대가 한인부대인 것처럼 속여 백군의 사기를 꺾어 놓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도 대한의용군은 한운용 중대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후 백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연해주해방전쟁사의 첫머리에 대한의용군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었다.

3) 내전 종결과 연해주 해방

한편 일본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군의 철병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를 끝낸 소비에트 적군은 1922년 9월 백군에 대한 총공격을 실시했다. 이미 6월에 철병을 선언한 일본군은 중립을 선언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철수해 있었다.

155) 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긔념준비위원회 편찬, 『십월혁명십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 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77쪽. “이르보! 뻬료드!”는 “앞으로!”라는 러시아어 뻬료드(Перед) 앞에 한국어 “이르보(여보)”를 붙인 말이다. 돌격할 때 쓰여진 구령이라고 생각된다.

장춘회담의 결렬과 함께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인민혁명군은 스파스크와 니콜스크-우수리스크를 거쳐 10월 25일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입성했다. 이미 10월 19일 인민혁명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입구 오케안스카야역에 이르렀지만 일본군 때문에 시내로 진입할 수 없었다. 시내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일본군을 압박했다. 결국 10월 24일 일본군사령부와 인민혁명군 대표 간에 철병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날 인민혁명군은 붉은 기를 들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지 스베틀란스카야 거리를 행진하여 들어왔다.[156] 일본군은 소비에트적군과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철병을 서둘렀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소비에트 적군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시베리아내전에서 적군의 승리가 선포되었다.[157] 장장 5년간에 걸친 러시아내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철병이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차례로 철병을 진행하던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것은 1923년 4월 2일이었다.[158] 1918년 4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이래 만 5년만이었다. 『선봉』지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군은 떠나는 마지막 날 공산주의 선전문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장교 1명과 병사 2명을 총살했다고 한다.[159]

5. 맺음말

이 글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 뒤이은 시베리아내전의 전개과정과 한인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1920년대 초반 간도와 연해주의 무장투쟁의 시작이 3.1운동이 아닌 시베리아내전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무장투쟁의 양상, 특히 간도에서 활동한 독립군부대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이는 이후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156) 「붉은 긔는 해삼에서 휘날리엇다」, 『연해주어부』, 1932. 11. 5, 4면.
157) Н. Ильюхов, И. Самусенко, Там же(연해주에서 빨치산운동), с.115-116.
158) 「일본군함 본국으로」, 『선봉』, 1923. 4. 5, 2면.
159) 「海參에서 돌아간 日本海軍 十七人 監禁」, 「군함 떠나는 날 軍人을 銃殺」, 『선봉』, 1923. 4. 17, 2면.



토 론 문

홍 웅 호 (동국대학학교)

이 발표문의 의도는 발표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을 3.1운동으로 치환하는 역사인식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1920년대 초반 간도와 연해주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의 역사에도 '3.1운동 환원론', 즉 3.1운동의 평화적 성격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이 간도로 망명하여 독립군 부대에 투신을 하고, 그 힘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라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인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해외의 무장투쟁을 3.1운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는 인식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시베리아내전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무장투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밝히고자 했다. 토론자도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사실 발표자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연해주지역 한인들의 항일 무장투쟁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발표문에 대해 토론하기가 힘들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렇기에 문외한의 입장에서 더 용감하게 몇 가지 질문과 코멘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 발표자는 발표문의 제목을 '시베리아내전과 독립군'이라고 했지만 사실 주 내용은 시베리아내전과 관련되어 있고, 독립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서술은 없다. 물론 맺음말에서 이 문제를 차후의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다면 발표문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내전에 참전한 한인 빨치산들의 지향점과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한인 빨치산들의 지향점을 뭉뚱그려서 조선의 해방과 연해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들의 다양함을 규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나 일면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발표자가 너무나 잘 알 듯이 연해주에서 원호인과 여호인들의 지향점을 사실 달랐다. 그럼에도 어떤 시기에는 서로의 지향점이 동일하기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연결된다.

3. 항일 빨치산들의 이후의 행적이 궁금하다. 이 문제는 발표자가 머리말에서 ‘러시아령 연해주와 중국령 간도는 지역적으로 한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간도와 연해주 지역 한인들의 항일운동을 한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일 빨치산들의 이후 행적을 실증적으로 추적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동일시했을 경우 각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4. 내전에서든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든 무기는 필수적이다. 한인들은 실제로 어디에서 무기를 조달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무기를 구입하기도 했고, 지급받기도 했다. 무기를 구입한 예는 1920년 2월부터 체코군이 유럽으로 귀환하면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기를 팔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해주와 북간도 한인들이 이들로부터 무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주로 러시아제와 미제 무기였으며, 일본제 무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무기를 지급받은 사례는 1921년 12월 대한의용군 부대가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사령부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기를 보면 1920년 2월경부터이다. 또 발표문에 따르면 1918년 4월 28일 창립된 한인사회당에 군사부가 있었고, 군사부장 유동열의 주관 아래 무장부대 편성사업을 전개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시기 무기는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래서 1920년 이전 한인들이 무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설명해주면 고맙겠다.



최운산의 삶과 독립운동

이 계 형 (국민대학교)

1. 머리말

본 글은 최운산의 삶과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전 논쟁점인 崔雲山과 崔文武가 동일 인물인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최운산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살피기 전에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운산은 1977년 대통령표창(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런데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최문무가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최문무가 한 등급 높게 공훈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전연 다른 인물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최운산이 친형인 최진동과 함께 1919년경 봉오동에서 조직했다고 하는 군무도독부와 1920년 5월경 군무도독부와 대한국민회가 통합하여 탄생한 대한북로독군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최운산이 두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을 했는지 구명될 것이라 본다. 이를 파악하고자 최운산 유족이 작성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와 해방 이후 간행된 독립운동 관련 책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군정서 조직과 최운산

1949년 채근식이 저술한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공보처 발행)에 도독부와 대한북로군정서에 대한 기술이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군사행동 시에 항상 同 보조를 취하여 오던 최진동(일명 명록), 李泰範을 간부로 하는 도독부와 합류하게 되었으니 일대군단이 되었다. 도독부군은 300여 명이었으며 개편 후의 독립군은 다음과 같다."[160]라고 기술되어 있다.

160)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71-72쪽.

최진동 사령관
부관 안무
연대장 홍범도
제1중대장 이천오
제2중대장 강상모
제3중대장 강시범
제4중대장 조권식
이원부대 군인 500명
군무도독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뤘고 대한북로독군부를 독립군으로만 기술하였다. 다만, 대한북로독군부의 구성을 사령관 최진동, 부관 안무, 연대장 홍범도 등과 중대장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때만 해도 군무도독부의 최진동만이 언급되고 있다.

1958년 11월 15일 홍범도 부대의 군인이었던 이종학의 회상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해 (1920년) 음 4월쯤(5월 19일–필자)에 국민회군대(안무 · 홍범도), 도독부(최진동), 이군부(허영장) 신민단 군인, 맹●●, 7개 무장대가 합하여 독군부라고 명칭하고 부장 최명록, 司會長 洪範圖, 軍部總長 安武였다. 그러니 總軍人數가 二千名에 達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전 『무장독립운동비사』과 달리 독군부 구성은 부장, 사회장 군부총장 등으로 되어 있다. 이때에도 최진동만 등장한다.

다음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공훈록이다. 1962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이 재개되면서 그해 204명, 1963년(내각사무처) 261명이 유공자로 선정되었다.[161] 이 가운데 만주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홍범도 · 서일 · 김좌진(1962) 최진동(1963) 등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홍범도의 공훈록에는 "국민회가 독립군 부대들을 재연합하여 동도독군부(東道督軍府)를 창설하였을 때에는 그 사령관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라고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와 달리 최진동의 공훈록에는 "1919년 3 · 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의 3형제는 조국광복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왕청현 춘화향 봉의동에 군무도독부를 설치하고 무장독립군을 훈련시켰다. 도독(都督)에는 이호(李虎)를 추대하고 그는 재정부장이 되어 활약하다가, 뒤에 부장(府長)으로서 도독부를 지휘하여 함북 온성 일대의 적 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대대적인 활약을 벌였다."라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때 처음으로 최진동의 3형제가 군무도독부를

161) 윤선자, 「광복 후 애국선열 선양정책 재조명」, ≪사학연구≫ 100, 2010 참고.

설치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아쉽게도 최진동의 동생들에 대한 명단은 없다.
그런데 최진동 공훈록의 참고자료를 보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7년, 1968년에 펴낸『한국독립운동사』이 포함된 점으로 미뤄 공훈록이 뒤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65년 김승학이 저술한『한국독립사』가 그보다는 빠른 셈이다. 여기에는 이전 자료와 달리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에 따르면 "(독군부는) 3.1독립선언 후 일어난 단체로서 본부를 왕청현 석현에 둔 최진동(일명 명록) 3형제가 주동이 되어 활동한 단체이다. 독립군 500여 명 장총 500여 정을 갖고 있었으며 군복은 중국 군인 복색과 같은 회색을 착용하였으므로 중국 군인과 구별하기 곤란하였다. 부장에는 최진동(함북 온성 출신이며 중국 군대에서 다년간 전투 경험이 있음) 사령관 李鳳南, 부사령관 李園, 참모장에 金浩錫이었으며 군인은 4개 중대로 나누어 있었는데 그 중대장에는 이천호, 강상모, 강시범, 조권식 등이었다."라고 한다.[162)]
『한국독립사』에서 처음으로 최진동 3형제가 등장한다. 군무독군부 부대 규모가 이전 300명보다 200명이 많은 500명으로 되어 있고 군복, 무기까지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독부의 구성도 사령관 李鳳南, 부사령관 李園, 참모장에 金浩錫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4개 중대장의 이름은 대한북로독군부 편성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62년 독립유공자 포상 선정 주무 부처였던 것일 계기로 독립운동사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에서는『한국독립운동사』1~5권(1965~1969)을 편찬하면서 관련 내용이 좀 더 학술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1962년 3월 내각수반 지시각서의 주요 사업 지시로『한국독립운동사』편찬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제3권은 3·1운동 이후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이 국민회군은 일제와 항전 시 후술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및 최명록의 군무도독부군과 제휴 연합작전을 간혹 전개하였다. 나아가 1920년 가을경에는 이들 독립군들과 차례로 통합하여 그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갔던 것이다. 이 같이 통합된 후에 국민회 소속 독립군의 간부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다." [163)]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직 구성은『무장독립운동비사』에 밝힌 바와 같다.

사령관 최진동(명록)
부관 안무

162) 김승학,『한국독립사』, 1965, 391쪽.
163) 애국동지회 편,『한국독립운동사』305쪽; 164쪽.

연대장 홍범도
제1중대장 이천오
제2중대장 강상모
제3중대장 강시범
제4중대장 조권식
이원부대 군인 500명 무기 500정

이와 더불어 『한국독립운동사』 3권(1967)에는 군무도독부와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다.

군무도독부는 그 본영이 왕청현 춘화향 봉의동에 위치하고 최명록(진동)이 거느리는 독립군부대이다. 간부 중에는 특히 공교도가 많으며 강력한 국내 진격을 주장하고 실천하였다. 192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한 것은 거의 이 독립군 부대라 할 수 있다. 이 부대의 병력은 1920년 8월 현재 일제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600명이고 무기는 軍銃 약 400정, 권총 약 50, 수류탄 약 120과 기관총 2문을 보유하고 있다 하였다.[164] 그리고 최명록 외에 중요 간부 진용은 참모장에 박영, 대대장에 이춘승, 중대장에 이동춘, 소대장에 최문인 등이라 한다. 이 최명록 부대도 홍범도 부대와 같이 이미 1919년 말경에 국민회군으로 통합되어 서로 쌍벽을 이룬 듯하다.[165]

이에 따르면 도독부의 규모가 『한국독립사』 보다 100명이 많은 600여 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중요 간부 진용은 참모장 박영, 대대장 이춘승, 중대장 이동춘, 소대장 최문인 등이라 한다. 처음으로 도독부군의 구성이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최진동의 3형제가 도독부를 만들었다는 언급은 없다. 1968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독립운동사』 4권에는 1926년 6.10만세운동부터 1932년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까지의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료편에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군무도독부 총재 최명록, 간부 朴英, 李春承, 李同春 등으로만 기술되어 있고,[166] 국민회, 독립군, 도독부가 통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라 개칭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뒤 협약이 파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64) 1920년 10월조, 「간도에 있어서의 불령선인단의 상황」(1920.10.28. 高警 제3431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탐구당, 1967, 163-164쪽.
16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71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170쪽.
16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1968, 732쪽.

구춘선이 인솔하는 국민회는 홍범도의 독립군 및 최명록의 도독부와 군사행동상 공동 동작을 약속하고 국민회의 군무부는 최명록의 군무도독부와 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라 개칭하고 국민회 측 간부는 주로 행정사무를 장악하고 독군부 측 主腦는 專히 군사해동을 집행하기로 결정 更히 홍범도 주재의 독립군 역시 此에 합동하여 북로사령부라 개칭하고 이어 군정서를 제외한 기타 6단체는 일시 협동이 성립하여 대략 통일된 觀이 있었으나 未久에 그 협약은 파기되어 재차 할거하고 (하략)[167]

그렇다면 최운산의 포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최진동은 1963년에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를 즈음해서 1964년, 1969년 12월, 1975년 2월, 1977년 3월 모두 네 번에 걸쳐 포상을 신청하였다.[168] 현재 신청 자료는 1969년과 1977년 것이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최운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운산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 1964년부터라고 한다면 서훈된 1977년까지 13년이 걸렸다. 최운산의 공적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서훈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3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66년에 3명, 1968년에 106명, 1969년에 1명, 1970년 2명, 1976년에 1명에 그쳤다가 담당부서가 총무처에서 원호처로 옮겨오면서 1977년에 105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169] 그러니 1964년, 1969년, 1975년에 최운산의 포상을 신청하였지만 되 리 만무했던 것이다.

1969년에 미망인 金姓女의 이름으로 작성한 포상 신청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마도 1970년 포상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서에는 기존에 밝혀지지 않는 최운산 관련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최운산 자신이 영솔하는 사병 1개 중대 이상 병력과 북간도에 들어온 망명, 우국 청년을 합하여 기백 명에 달하여 사병으로서 훈련 양성하였으며 교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마적단 來襲을 방지하고 동포의 생명재산 보호에 진력을 다하였고, 후일에 독립군 편성에 모체가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진동을 보위단에서 퇴직케 하여 사령관직에 취임케 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진동 중심으로 도독부가 조직되었다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운산이 500명에 달하는 도독부군의 무장, 피복, 식량 등은 독지가나 의연금 성

16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4, 733-734쪽.
168) 1977년 독립유공자 포산 신청서.
169) 윤선자, 「광복 후 애국선열 선양정책 재조명」, 370쪽.

금 등 한 푼의 찬조금 없이 사재로서 충당했다고 한다. 대한북로독군부의 구성은 이전 자료와 같으나 당시 무장은 최운산이 사재 5만 원을 투입하여 러시아령 자유시에 가서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아쉽다.

1969년 최운산 포상 신청서

"(전략)
다. 일즉 동삼성 간도에서 출생 성장해서 중국 서당에 수업하였기에 중국어에 능통하여 당시 교민의 제반 험로를 대변, 동삼성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활약하다. (중략) 최운산은 동삼성 보위단 군관 간부로 활약. 伯氏인 최진동 장군도 보위단 군관 고급 간부로, 季氏인 崔明淳도 간부를 3현제가 혼연일체, 정력을 경주하던 중 지방 마적의 횡포가 심하여 교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3성 정부의 특별한 후의로써 최운산은 보위단을 離籍 1개 중대의 병력을 인솔하여 사병으로 양성해 가면서 교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 것이다. (중략) 보위단 재직 시 중국인들은 통칭하기를 최진동은 崔喜, 최운산은 崔豊, 최명순은 崔興이라 칭하였다. (중략) 그 후 중국 관헌과 친밀한 유대와 신임을 얻어 중화민국 동삼성 정부의 지적정리를 할 시 최운산은 왕청현 총대로서 활약하면서 교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미개척지인 황무지를 10여 개 지방 지주를 본인(최운산)의 명의로 지적을 정리 개간, 경작한 것이다. 따라서 현 간도성 도문을 위시하여 석현 대황구 봉오동이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지가 앙등하게 됨에 의외의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두유 및 면류, 제면 공장 등을 경영은 물론 축산 대곡상을 영위함으로써 북간도 굴지의 거부가 된 것이다.
라. 많은 우국지사들은 속속 간도로 망명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한만 국경인 석현 봉오동 냉수천자 일대는 최운산 自領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국 관헌에게 신임을 받았고 봉오동에 3천평에 달하는 성을 축성, 瓦家 3동을 건축하여 최운산 자신이 영솔하는 사병 1개 중대 이상 병력과 북간도에 들어온 망명, 우국 청년을 합하여 기 백명에 달하여 사병으로서 훈련 양성하였으며 교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마적단 來襲을 방지하고 동포의 생명재산 보호에 진력을 다하였고, 후일에 독립군 편성에 모체가 된 것이다.

1. 1919년 독립선언을 전후하여 북간도에 산재하고 있는 내국 청년들은 일대 분기하여 간도, 연길, 화룡, 왕청, 혼춘현 등지를 독립군의 본거지로 정하고 북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국지사 및 국내에서 들어온 망명 지사를 총망라하여 독립군을 편성 항일무장투쟁할 것에 합의 결정하고 최운산이 영솔하여 온 사병을 독립군 편성 창설하는데 모체가 되어 도독부 독립군을 편성한 것이며 본부도 최운산 성내에 두고 훈련 양성한 것이다. 도독부 독립군은 순전히 최진동 장군 3형제가 주동이 되어 활동한 독립군 부대이다. 도독부군은 중국 군인복과 동일하고 사령관에 최운산을 추대하려고 하였으나 사양하고 실형인 최진동을 보위단에서 퇴직케 하여 사령관직에 취임케 한 것이다.
2. 도독부군은 시초에 500명이 완전 무장하였으며 독지가나 의연금 성금 등 한 푼의 찬조금 없이 명실공이 최운산 자신의 사재로서 장비 피복 식량 등 조달 보급한 것이다.
3. 1920년 최진동, 이태범을 간부로 하는 도독부와 그 외 단체가 합류하여 명실공이 대

군단이 되었는데 개편 후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사령관 최진동
부관 안무
연대장 홍범도
제1중대장 강상근
제2중대장 이천오
제3중대장 강시범
제4중대장 조권식
대군단이 편성됨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여할 처지에 놓여 있음으로 1920년 1월경 최운산은 또다시 사재 5만 원을 투입 러시아령 자유시에 가서 무기를 구입한 것이다.

4. 1920년 6월 일본군 新美二郎이 지휘하는 남양수비대 및 安川 소좌(제19사단) 일부 약 1개 연대 병력이 두만강을 넘어 봉오동 독립군의 본거지, 來襲을 해올 것을 미리 탐지한 최운산은 그 정보를 實兄인 최진동 장군 진지에 가서 제공함으로써 우리 독립군은 진지를 이동, 산중에 독립군을 매복시킨 후 일본군 대부대와 대격전 끝에 적군 120여 명을 사살이라는 전과를 거뒀으며 최운산 자신도 渾身敢斗하여 민활한 정보수집의 노력으로 대전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5. (생략)
6. 풍찬노숙하면서 역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독립군은 노령으로 망명할 시까지 최운산은 계속 투쟁한 것이다. 도독부 독군부 독립군에 군자금 조달로 말미암아 가산은 탕진되고 봉오동의 거대한 가옥은 일본군의 야만적인 무자비한 토벌로 인해 消盡되고 말았다.
7. 만년에 와서 倭政의 강압적으로 창씨제도가 실시됨에 다라 여하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창시하지 않고 과거에 독립군 자금 조달자라 하여 불령선인으로 취급되어 1939년 11월부터 10개월이나 일경에 의하여 투옥당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고문으로 인한 신병으로 신음하시다가 1945년 7월 5일 조국광복도 보지 못하고 한 많은 일생을 끝마쳤습니다.
8.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그 규모가 컸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봉오동 전투를 비롯하여 우수리 전투 등 빛나는 사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2명뿐이라는데 유의하기 바라며, 수상자 1명은 친형인 최진동 장군이고 나머지 1명은 李東春은 최운산의 영솔하에 있었음.

하지만 최운산이 포상되지 못하자 1973년경 김성녀는 “국민과 후손들에게 최진동 3형제의 혁혁한 독립운동 투쟁사를 사실대로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각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한 내용이 『항일국민회군』(1974, 221–223쪽)에 실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최운산이 도독부와 독군부 창설자이고 참모장으로서 군자금 조달을 책임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김성녀는 최진동 장군을 위시하여 3형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다 작고하였는데, 해방 후 하급 지휘관 및 졸병으로 생존한 독립 인

사들이 공적을 부풀려 허무맹랑한 사실과 왜곡되고 과장된 조작 사실로 인하여 독립운동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공적이, 史錄에 뒤바뀌었지만 반드시 사학가들에 의하여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김성녀는 생존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진정인=김성녀(당 80세, 1894년생, 1975년 작고)

본인은 독군부 총사령관 최진동의 제수이며, 도독부, 독군부의 창설자이며 참모장으로서 모든 군자금을 맡아 조달하였으며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진동 장군의 친제인 최운산(일명 만익)의 미망인이며, 도독부 독군부의 지략가이며 작전참모였고, 최진동장군과 최운산의 친제인 최치흥(일명 명순)의 형수 되는 사람입니다.
3형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독부 독군부를 창설하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분들의 공적이 史錄에 누락 및 오기된 사정을 시정코자 하오며, 물론 독립 운동한 것은 개인의 명예욕에서 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은 국민과 후손들에게 최진동 3형제의 혁혁한 독립운동 투쟁사를 사실대로 명백히 밝히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나이다.
記
1. 최진동 장군은 1963년 3월 1일에 독립유공훈장 단장(제374호)을 수여 받았음,
최진동 장군의 공적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에서 만도 수십 페이지에 달하도록 공적이 수록되어 있으나 手下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復章이나 重章을 수여 받고 있기에 사실을 究明하고자 하오며, 모든 공적을 사실과 동일하게 남기고자 하오며 勳格의 승격도 원하는 바입니다.
2. 최운산(일명 만익)은 1961년 1월 29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 褒章으로 결정되었다고 총무처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1968년 2월 12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보류되었으며, 1969년 12월 17일에 총무처에 사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과 공보처 발행 『무장독립운동비사』 및 『대지의 성좌』 제1부 망명지대와 애국동지회 발행 『한국독립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최치흥(일명 명순)은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회 발행) 및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한국독립운동사』 제3권 및 제4권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투사이다.

이와 같이 최진동 장군을 위시하여 3형제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시었는데, 조국 광복을 맞아 독립운동 당시 하급 지휘관 및 졸병으로서 생존한 독립 인사가 자신의 공적을 과대 선전하기 위하여 허무맹랑한 사실과 왜곡되고 과장된 조작 사실로 인하여 독립운동사에 오점을 남겼으며 일생을 독립운동과 조국광복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총 투입하여 투쟁하였으나 공적이, 사록에 수록이 뒤바뀌어져 있기에 반드시 사학가들에 의하여 사실이 입증되리라 보며 독립운동을 하시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양심에 호소코자 합니다.

가. 북만주 지역에는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으나, 그 단체들이 왜 통합을 하여야 했으며, 통합 후에는 누가 총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통합 후에는 누가 자금을 지원하였는가요?

나. 북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당시 누가 거처와 모든 장비 및 피복, 식량과 모든 군자금을 제공하였는가요?

다. 일본군에서 독립군의 근거지라 하는 왕청현 봉오동 일대와 서대파는 누구의 소유였는가요?

라. 도독부, 독군부에서 사재를 투입하여 서대파에 군정서 겸 군사교련소를 창설한 사실을 알고 계시며, 창설 당시 자금은 누가 조달하였는가요?

마. 한국에서 북만주로 독립운동을 위하여 입만 하신 분 중에 누가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셨던가요? 유일한 분으로서는 이시영 선생(2대 부통령 취임한 분)이시며, 그 외에는 북만주에 거주하는 교민의 도움으로 지탱하였고, 그 외 자금은 누가 지원하였던가요?"

본인은 이상과 같은 사실의 진부를 가려서 한국독립운동사의 오점을 시정하고, 일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최진동 장군 3형제의 명예를 위하여 흑백을 가려서 모든 역사의 산 증거에 의하여 사실대로 밝히고자 하여, 여러 사학가 제씨들에게 호소하며, 자에 진정서를 제출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항일국민회군』에 [참고자료] '도독부군 연혁'이란 제목 하에 1969년 총무처에 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약술되어 있다.[170] 이는 1969년에 신청서 자료와 진정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항일국민회군』이 간행될 즈음에 독립운동사가 편찬되었다. 1968년 4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은상)가 발족하고 1971년 2월 독립운동사 제1권 『의병항쟁사』가 간행된 이후 1973년에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가 세상에 나왔다. 이는 김용국 · 김의환 · 조동걸 · 최영희 · 홍이섭 등이 편찬을 담당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도 『한국독립사』에서처럼 최진동의 3형제가 도독부를 건설했다는 언급은 없다.

군무도독부의 최진동 역시 홍범도와 같은 함경도 출신의 무인으로서 李泰範 등과 함께 왕청현 춘화향 鳳儀洞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국내진입작전을 계획 수행하였는데, 그 병력은 6백여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간부진은 최진동과 참모장 朴英, 대대장 李春承, 중대장 李同春, 소대장 崔文仁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민회 무장부대 · 대한독립군 · 군무도독부군의 3개 전투부대는 1920년에 합동 개편하여 연합 사령부를 구성하니 그 병력은 문자 그대로의 정병 맹장이 수천 명으로 莫强의 독립군

170) 『항일국민회군』, 1974, 240-241쪽.

이었다. 이 통합 독립군 사령부의 부서 편성은 아래와 같았다.

사령관 최진동(일명 : 명록)
부관 안무(安武)
연대장 홍범도
제1중대장 이천오(李千五)
제2중대장 강상모(姜尙模)
제3중대장 강시범(姜時範)
제4중대장 조권식(曹權植)[171]

그 뒤 1975년 이강훈의 『무장독립운동사』(서문당)가 출판되었다. 이에 실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이전과 달리 최진동 3형제라고 기술되어 있지 않고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전투 군단이 편성되었고 이들의 업적에 봉오동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마 김성녀의 진정서의 내용을 이강훈이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한다.

"군무도독부는 최진동 · 최운산 · 최치흥 3형제가 왕청현 봉오동을 근거지로 하고 풍부한 경제력을 선용하여, 거의 개인적 힘으로 양성한 수백 명의 사병을 기간으로 일개 전투 군단을 편성하였으며, 최진동 사령관과 그의 동생들의 참모와 경제적 뒷받침으로 전투 태세를 완비하고.... 봉오동전투에서 흉적 일본군에게 대 타격을 줌으로써 독립전사에 불후의 이름을 남긴 기관으로 되었다." (67쪽)

"일찍이 정착하여 생활기반을 굳혀 놓고 그 토대 위에서 독립전쟁의 장비며 군량 등을 보급하여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한 최진동의 동생 최운산과 최치흥 등 3형제의 업적은 봉오동전투 등을 비롯하여 당시(경신년) 대일 항전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였다." (84쪽)

"왕청현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가량 떨어진 산간이다. 장백산의 지맥인 고려령의 험한 산줄기가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꾸불꾸불 갈 지(之)자형으로 장장 2십 리를 뻗은 계곡 지대에 1백 수십 호의 민가가 흩어져 있었다. 이 부락

171) 제5권 『독립군전투사』(상), 348-349쪽.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동간도 국민회'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권 '항일 단체와 독립군의 편성'조; 『한국독립운동사』 4권, 자료편 3 만주에서의 독립 운동 자료 44 참조.

에는 최명록(최진동) 3형제가 있어서 그들의 지도 밑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써 재류동포의 생활과 기타 모든 면에서 잘 짜여 있었다. 가옥 구조도 한국식이어서 마치 국내의 한 지방 같았다. 중국인 가옥이 몇 집 끼어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중국 관헌이 순라를 돌 뿐 독립군의 자유무대였다."(96쪽)

"독립군을 편성할 때에 사령부를 봉오동에 설치하기 위하여 기성 촌락을 군사촌으로 개발한 것은 주로 최진동 동생되는 최치흥과 최운산 형제의 노력의 결과이다."(98쪽)

"봉오동은 대부분이 새로 지은 번듯한 가옥인데다가 특히 상촌은 도로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곳은 천연적으로 일부당천 만부부당한 요새로 된 것을 인공을 가해서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꾸미자는 계획이었다. 마을 한쪽에는 새로 지은 목조 교사가 있었으며, 교사 앞에는 독립군의 연병장이 있었다."(101쪽)

그 뒤 1975년 미망인 김성녀가 작고한 뒤에 1977년 3월에 최운산의 장남인 崔治榮이 다시금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특이점은 이전에는 '萬益'이란 이칭만 있었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文武'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문무'라는 이름을 별칭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예전과 달리 최운산이 豆油공장, 製麵공장, 製油공장 등과 축산, 곡물 무역 등을 경영하여 북만 유일한 거부가 되었고 봉오동을 위시하여 도문, 석현, 양수천자, 서대파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운산은 도독부 창설 시초에 참모장에 추대되었다가 족벌적인 인상을 배제하고자 사양하고 막료로 혹은 참모로 제반 작전과 아울러 재정과 정보를 총관장하여 조국독립운동에 시종일약하였고 독군부 작전에는 빠짐없이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최운산이 군대 편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족벌적인 인상을 주기 싫어서였다고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주요 전투로서는 봉오동전투, 나자구전투, 대황구전투, 도문대안전투(1930), 안산리전투(1930), 우수리전투 등이라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운산이 일본경찰 수명 사살 사건에 연루되어 1923년 1월부터 1925년 3년간 중국 동삼성 길림감옥에 투옥되었음도 새롭게 밝혀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1963년에 수훈을 받은 崔天浩(독립장), 趙元世(독립장), 金寶炯(독립장), 張基千(독립장)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적개요

1. 보위단 간부(1908–1912)

2. 도독부 및 독군부 창립 및 자금 지원(1915–1922)
 가. 1920.1 일금 5만원 군자금 援
 나. 기타 식량 및 군무기 자금 지원
3. 북로군정서 주동 창립 및 군자금 지원(1920–)
4. 전투참가 : 봉오동전투, 나자구전투, 대황구전투, 도문대안전투, 안산리전투, 우수리강 전투(1920–1930)
5. 일본경찰서 습격 사건 참가(1923.1–1925) 수명 사상하고 중국 동삼성 길림감옥 투옥, 3년간 복역
6. 군(독립군)자금 지원 : 두유공장, 제면공장, 제유공장 기타 부동산 매각 처분하여 군(독립군)자금에 투입

최운산은 1894년부터 1902년까지 국자가에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중국어에 능통하여 재만거류민들의 險路를 대변하여 권익옹호에 진력하다가 뜻한 바 있어 3형제가 보위단(중국 육군) 간부로 다년 활약하다가 지방 마적의 횡포가 심하여 교민의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삼성 정부의 특별한 후의로 최운산은 보위단을 이적할 시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인솔하여 사병으로 양성, 동포들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였다.

독립운동 초기 소유 재산은 부동산 면적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개군의 면적과 동일하며 豆油공장, 製麵, 製油고장 등과 축산 곡물 무역 등을 경영하여 북만 유일한 거부가 되었고 봉오동을 위시하여 도문, 석현, 양수천자, 서대파 등이 최운산의 소유 부동산이었고 동포들의 신임은 물론 중국 관헌의 신임도 받고 있었으며 1915년에 봉오동에 성을 축조하여 보위단에서 인솔해온 병력을 주축으로 우국청년을 규합 기백 명에 달하는 병력을 훈련 양성, 후일 도독부 독립군의 모체가 된 것이며, 도독부원 및 독군부도 최운산 성내에 설치한 것이다.

독군부의 전반 경비는 순전히 최운산의 개인 자산으로 유지되었고 최운산은 도독부 창설 시초에 참모장에 추대되었다가 족벌적인 인상을 배제하고자 사양하고 막료로 혹은 참모로 제반 작전과 아울러 재정과 정보를 총관장하여 조국 독립운동에 시종일약하였고 독군부 작전에는 빠짐없이 전투에 참가하였다.
독군부 시초에는 670여 명이 완전 무장하였고 장비면에서 타 독립군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무기도 裝備되었고 독지가나 의연금 성금 등 한 푼의 보조금 없이 명실공이 최운산 자신의 사제로서 충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만 독립군이 통합됨에 따라 무기를 구입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1920년 1월경에 최운산은 사재

일금 5만 원을 재투입하여 노령 자유시에서 무기를 구입 충당하였고 북만 일대 독립군 부대 내 단체들이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대는 없을 것이다.
독립군 각 부대가 명령 계통이 확립되지 않아 항일전에 효과적인 對敵이 되지 않아 통합 사령부 설치를 절감하고 북만일대 각기 독립군부가 통합된 부대가 독군부이며 그 병력 수는 기천 명에 달하였으며 명실공이 일대 군단이 되었다. 북만 독립군이 대동통합의 원인 중 최대 요건은 독립군의 모든 장비 및 피복 식량 등 제반 문제를 최운산이 책임지기로 합의한데 있다. 독립운동(북로군정서)에 거대한 소유 재산을 투입하여 군자금에 소진되었던 것이다.
중요전투 : 봉오동 전투, 나자구 전투, 대황구 전투, 도문대안전투(1930), 안산리 전투(1930), 우수리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1923년 1월부터 1925년 3년간 중국 동삼성 길림감옥에 투옥(일본경찰 수명 사살 사건)

崔天浩(1900-1989) 평북 의주

1919년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발발하자 이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어 만주 봉천성 관전현(滿洲 奉天省 寬甸縣)으로 건너간 그는 오동진(吳東振)을 단장으로 하는 독립운동 단체인 광제청년단(廣濟靑年團)에 이용규(李龍奎)·김관봉(金寬鳳)·김광진(金光振) 등의 권유로 그 단체에 가입하여 활약하였다. 그리고 1915년 5월 18일,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단원인 김광진·고학운(高學運)과 같이 의주군 가산면 도금동(都琴洞)의 김준석(金俊碩)에게 일금 31원을 모금하였으며, 국내의 적기관 공격에도 활약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趙元世(1898-1986) 평북 용천

1920년 8월 김중량(金仲亮)·김유신(金攸信)·박초식(朴楚植) 등이 평북 의주군 동암산(義州郡東岩山)을 근거로 조직한 무장항일 단체인 보합단(普合團)에 이광세(李光世)·김영율(金永律)·김도원(金道源)·이규화(李圭華)·이윤성(李允成)·김병규(金炳奎)·심창업(沈昌業)·조기화(趙基和)·조창화(趙彰和)·김득하(金得夏)·김승옥(金昇玉) 등과 함께 가담하였다. 동년 11월 4일에는 이광세와 함께 평북 용천군 외상면 평안동(外上面平安洞) 박초식의 집 앞뜰에서 폭탄 11개를 제조하였다. 동년 11월 27일에는 이광세 외 2인과 함께 평북 용천군 읍동면 양책리(邑東面良策里)에 있는 이일영(李日英)을 방문하여 군자금 100원을 모연하는 한편, 전자범(全子範)에게서 어음 4천 5백원을 약속받기도 하였으며 모금한 군자금은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1920년 서울에서 활동하던 김도원(金道源)의 종로경찰서 순사 이정선(李廷善) 사살사건을 계기로 이윤성(李允成)·이일화(李一華)·이광세(李光世) 등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2년 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활동하였다고 한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金寶炯(1896-1977) 평북 영변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2년에는 통의부 제5중대 제1

소대 참사(參士)로 봉천성(奉天省) 개원(開原)에서 중·일 양경(兩警)과 교전하던 중 양완관통상(兩腕貫通傷)을 입고 체포되어 수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張基千(1903-1980) 평북 의주

1919년 만주로 망명하여 박장호(朴長浩)·조맹선(趙孟善)·전덕원(全德元)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22년에는 통의부(統義府) 제5중대 참사(參士)로서 동지 8명과 함께 의주 고령삭면(古寧朔面) 일본주재소를 습격하여 일경 3명을 사살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후 최운산은 1977년 포상자로 선정되어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공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일찍이 만주에 망명하여 형과 동생 최명순(崔明淳) 3형제가 길림성에 터를 잡았다. 1919년 3형제가 합심하여 도독부(都督府) 및 독군부(督軍府)를 조직하는 한편 그는 군자금 5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최운산이 참전했다고 한 "나자구(羅子溝) · 대황구(大荒溝) · 도문대안(圖們對岸) · 안산리(安山里) · 우수리강 등에서 있었던 전투에도 참가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관련 자료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운산(1885.12.7.-1945.7.5.)

최진동(崔振東)의 동생이다. 일찍이 만주에 망명하여 형과 동생 최명순(崔明淳) 3형제가 길림성에 터를 잡았다. 1919년 3형제가 합심하여 도독부(都督府) 및 독군부(督軍府)를 조직하는 한편 그는 군자금 5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도독부가 대한독립단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이 조직되자 최진동은 사령관에 선임되었다. 1920년 6월 봉오동(鳳梧洞) 전투에 참전하여 승리한 것을 비롯하여 나자구(羅子溝)·대황구(大荒溝)·도문대안(圖們對岸)·안산리(安山里)·우수리강 등에서 있었던 전투에도 참가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한국독립사』(김승학) 전권 391면(1965년판)

수훈자 金寶炯('63독립장), 張基千('63독립장), 趙元世('63독립장), 崔天浩('63독립장) 입증

3. 최운산과 최문무와의 관계

최운산이 서훈을 받은 뒤로 그와 관련한 책자가 간행되지 않은 듯하다. 그 뒤 1988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에 "대한북로독군부의 성립에 있어서는 봉오동에 거대한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최진동의 3형제가 가산을 모두 독립군에 헌납하여 막대한 군비를 조달한 것이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172]라고 기술되어 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최문무의 공적을 발굴하여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서훈하고, 이후 2009년 보심위원회에서 연변에 살고 있던 최인순이라는 사람을 독립유공자 최문무의 후손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최인순의 아들 유용운이 중국 당안자료에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최문무라는 기록을 확인하고 조카가 포상신청을 했다고 한다. 다만, 포상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공적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최문무의 공훈록에 따르면, 그의 출생연도가 (1879)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수정한 것이라 한다. ( ) 처리를 한 것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서훈될 당시 그의 생몰연대는 (1897~1942)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1920년 곧 23세에 대한북로독군부 모연대장을 지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1925년 3월 30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최문무가 8년, 최태여가 5년의 징역 선고를 받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는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173] 당시 최문무는 47세 최태여는 41세로 보도하고 있다. 이를 역산하여 그의 출생연도를 추측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황상 최운산의 다른 이름의 최문무가 맞다고 생각된다. 족보에 따르면 최운산과 최태여는 아주 가까운 친척지간이고 동갑나이이다. 그럼에도 서로 나이가 다른 것은 최문무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문무(1879?-1942?)

1917년경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0년 초반 왕청현(汪淸縣) 춘화향(春華鄕) 봉오동(鳳梧洞)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에 들어갔다. 독군부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와 대한군무도독부(大韓軍務都督府)과 연합하여 조직된 무장투쟁단체였다. 최문무는 1920년 3월 26일 대한북로독군부 모연대장(募捐隊長)으로 함경북도 온성군(溫城郡) 유포면(柔浦面) 남양면을 습격하고 동년 8월경 대한북로독군부 제1대장으로 무장투쟁의 선봉에서 활동했다. 1920년 음력 11월 중에 무장한 30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본부를 출발하여 1922년 음 2월에 이르기까지 간도 각지로 돌아다니며 5천여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2년 음 3월 상순경에는 재무원 최태여(崔泰汝)와 함께 70여 명의 무장한 부하를 거느리고 음 7월에 이르기까지 역시 간도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수천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동년 음 9월 중에 일본 토벌대가 간도에 들어오자 노령(露領)으로 피하여 계속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1923년 9월 중순경에 다시 간도로 나와 수십 명의 무장한 부하를 거느리고 일본관헌의 경비 상태를 탐정하는 동시에 수천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최문무는 1925년에 체포되어 동년 2월 30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참고문헌>

17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4(독립전쟁), 1988, 96쪽.

173) ≪동아일보≫ 1925년 4월 10일자, 「간도 一幅을 횡행하던 독군부 모연대장」; ≪매일신버≫ 1925년 4월 10일자, 「武裝團의 魁首 8년 징역에 不服控訴」.

동아일보(1925.3.18, 1925.4.10)
조선일보(1925.4.10)
大韓北路督軍府의 內訌에 關한 件(1920. 8. 2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1)
吉林延吉道道尹公署稿(국가보훈처, 중국지역수집사료) 제1권 393쪽, 제4권 43쪽.
『北間島지역 獨立軍團名簿』(국가보훈처, 1997) 261쪽.
間島 및 接壤 露支領에 있어서 不逞鮮人團의 近況에 關한 件(1924.1.25)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38)

최문무의 공적 조서를 보면 이전과 달리 참고자료가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내용도 구체적이고 풍부하다. 이는 예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DB화가 진행되면서 최문무와 관련 내용이 검색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의외로 최운산이라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거의 없다. 아마 최운산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1934–40년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훈처가 최문무를 최운산이 아닌 다른 인물로 본 것은 1977년 3월 신청서에 최운산이 '최문무'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로 보인다. 최운산의 공훈록에 '최만익' 만이 이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운산은 족보에 보면 1886년 11월 17일(음)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훈록의 자료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연길에서 崔宇三(1860–1925)의 2남으로 태어났다. 함경북도 온성에 살던 최우삼이 1880년대 중반 두만강을 건너 연길 사득촌(현 연길시 소영진 신풍촌 일대)에 자리를 잡은 뒤[174]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태어난 것이다. 그의 형인 최진동이 1884년 7월 17일(음)에 태어났으니 두 살 터울이다. 그의 이름은 崔明吉로 형 明祿(1884–), 동생 明淳으로 '明' 자 항렬을 따랐다. 그는 이외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동안에는 高麗, 萬益, 文武 등을 사용하였고 雲山은 그의 호가 아닌가 한다. 중국군에 들어갔을 때에 최진동은 崔喜, 최운산은 崔豊, 최명순은 崔興이라 칭하였다고 하는데,[175] 족보에는 '崔福' 으로 되어 있다.

최운산이 최문무라고 밝히기 전에 최진동이 언급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최진동 3형제가 조직했다고 하는 군무도독부의 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성여의 진성서에는 최운산이 독군부 참모장, 최명순이 참모로 되어 있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춘선 · 안화춘 · 허영길 공저, 『최진동장군』(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6)에는 1920년 최진동이 자신의 무장단과 朴英[176]의 계를 통해 모집한 장정

174) 김춘선·안화춘·허영길 공저, 『최진동장군』,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2006, 12쪽..
175) 중국군은 근엄한 성격의 최진동 장군이 잘 웃지 않자 좀 재미있게 지내라고 최희(기쁠 喜)라고 불렀고 성격도 여유 있고 재력도 있는 최운산 장군을 최풍(풍요로울 豊)이라고 불렀다. 재미있고 장난기 많은 최흥(흥겨울 興)이라고 불렀다.

60여 명을 토대로 군무도독부를 조직하였고, 문기를 사들여 무장하는 한편 소작농 가운데 건장한 장들을 모집하여 군사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연변 각지에서 조선족 청장년들을 모집하며 군사력을 키웠다. 당시 1개 대대에 4개 중대(각 2개 소대)로 편제되어 200여 명에 달하였다. 자위대를 통하여 연변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온성 · 종성 · 경원 · 명천 등지에서 적임자가 선발되면 봉오동의 근거지로 보내졌다.[177] 당시 편제는 다음과 같았다.

총재 최진동
참모장 朴英
대대장 朴春承
중대장 金世重 曹根植 姜尙模[178] 姜時範
교련관 邊南吉
외교원 金豪錫 嚴振鳴

『독립군전투사』에는 군무도독부의 최진동 역시 홍범도와 같은 함경도 출신의 무인으로서 李泰範 등과 함께 왕청현 春華鄕 鳳儀洞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국내진입작전을 계획 수행하였는데, 그 병력은 6백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편제로 이뤄졌다고 하였다.[179]

도독부 최진동
참모장 朴英
대대장 李春承
중대장 李同春
소대장 崔文仁

176) 朴英, 朴永, 朴根星, 朴鎭. 함북 경흥 출신으로 1908년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등 무자활동을 벌이다 1910년 가족을 거느리고 북간도 지역 화룡현 三洞浦로 이주하였으며, 1915년 봉오동으로 이사하였다. 이후 박영은 1919년 용정에서 3·13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참가하였으며, 봉오동 지역에서 항일무장 독립군을 이끌던 최명록(崔明錄, 일명 崔振東)을 도와 大韓軍務都督府 참모와 北路督軍府 군무부장으로 활동하였다. / 1919, 1920年 中國 吉林省 汪淸縣 등지에서 大韓軍務都督府의 參謀와 北路督軍府의 軍務副長으로 활동하였으며, 1920年말 러시아로 이동하여 大韓獨立軍團 軍需課員으로 활동하며 무기구입 및 사관생도 모집 활동에 힘썼고, 1921, 22年경 高麗革命軍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23年경 歸滿하여 1924년 安圖에서 白山武士團 副團長, 1926年 廣州에서 黃埔軍官學校 교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177) 김춘선·안화춘·허영길 공저, 『최진동장군』, 86쪽.

178) 함경남도 이원 南松面 壽巷里. 경술국치의 한을 품고 일찍이 북간도로 옮긴 부친을 따라 망명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간도 용정 및 新奧坪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20년에는 간도 지방의 청년회에 가입하여 의사부 부원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봄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하는 대한독립군 부대에 참가하여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일제의 기관 파괴 및 일군경과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동년 6월 6일에는 봉오동(鳳梧洞) 전투의 예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삼둔자(三屯子) 전투에서 일본군 안천(安川) 소좌가 지휘하는 대대병력에 치명적 타격을 준 후 부대를 재정비할 때 최진동(崔振東) 사령관 휘하 제2중대장에 임명되었다. 1920년 7월 7일에는 봉오동전투에 참전하여 상촌(上村)에서 적군 350명을 사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179) 독립운동사 제5권 : 독립군전투사(상), 348쪽.

이 자료에서는 최문무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1920년 5월부터 여러 독립군 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할 때 최문무가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 1920년 5월 7일 대한국민회가 주도하여 왕청현 춘화향 嘎呀河에서 군무도독부를 비롯하여 대한신민단 · 북로군정서 · 의군부 등이 참가하였다. 이때 18개조를 합의하여 상호 기득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일제에 대응하기로 하였지만 군사력이 약한 대한국민회가 이를 주도하는데 마뜩해 하지 않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결국 북로군정서는 이에 찬동하지 않고 탈퇴하였다.[180] 그런데 당시 세력이 약했던 대한국민회가 의군단의 무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군무도독부 모연대장 최문무가 이를 처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최문무는 독립군 단체의 통합에 주력하는 한편 모연대장으로도 활동했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최문무 관련 자료가 나온다. 1920년 5월 22일 대한국민회는 군무도독부와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하였다.[181]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도 가담하여 북로사령부로 개칭하였다.[182] 대한국민회가 주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군무도독부와 대한독립군이 군사업무를 맡았다. 이후 홍범도는 군무도독부의 근거지인 봉오동으로 옮겨갔고 최진동 부대와 함께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불거졌다. 1920년 6월 대한북로독군부가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의 문서에 따르면,[183] 이최명록이 홍범도 부대가 일제에 아무런 응전을 하지 않은 채 급속히 퇴각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며 홍범도를 비판하고 나왔다.[184] 이후 새롭게 부대 편성이 이뤄지는데 당시 최문무가 제1대 대장으로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게 된 것이다. 아마 모연대장으로 활동하던 최문무가 전투 지휘관으로 편제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모연대는 군자금을 수합하는 일을 맡은 부서이다.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ⅩⅩ): 중국편(5)』에 실린 '북간도지역 독립군단명부'에 대한북로독군부(1921.4)의 편제에서는 최문무가 募捐隊長으로 나온다. 1921년 6월 27에 작성된 일본 보고문서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28/受20669호–公제259호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180) 불령선인단의 행동에 관한 건(1920년 7월 16일);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29쪽; ≪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자; 「길림도윤공서고」(중국 당안관 자료), 393쪽.

181) 강덕상, 『현대사자료』 27, 81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48·287-288쪽.

18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632-633쪽.

183) 『한국독립운동사자료』 43권(중국동북지역 편 5), 機密 제222호 「大韓北路督軍府ノ內訌ニ關スル件」, 1920년 8월 28일.

184) 이에 대해 김성녀는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과 격렬히 전투할 때, 홍범도 장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독립군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최운산이 도독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세찬 빗줄기와 짙은 운무가 온 산을 뒤덮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독립군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증언하였다.

것에 관한 건’ 에서도 최문무가 모연대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1921년 6월 11일 자유시참변 이후 군무도독부가 재편성되었을 때의 상황이다.
그 이후에도 최문무는 모연대장으로 활동을 계속하였다. 최진동은 국내 진입작전을 위해 1924년 1월 폭탄 40개를 훈춘현 土門子에 들여오는가 하면 대원들을 훈련시켰다. 이때 최문무는 20명을 5명씩 4개반으로 나누어 간도 각지를 돌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1923년 간토대지진에서 희생당한 동포들에게 무휼금을 전달하고자 하였다.[185)]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1925년 4월 10일자 기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문무가 8년간 중국 간도에 들어가 왕청현 춘화향 봉오동에 본부를 두고 540여 명의 부원을 거느린 독군부에 들어가 募捐隊長이 되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를 통해 최운산과 최문무가 다른 인물로 주장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문무는 1919년 음력 11월 중에 무장한 3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1920년 음 2월에 이르기까지 간도 각지로 돌아다니며 5,930여 원의 군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또한 최문무는 1920년 음 3월 상순경에 다시 최태여와 함께 70여 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음 7월까지 간도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수천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그해 음 9월 중에 일본토벌대가 간도에 들어갔을 때(경신참변–필자)에 러시아로 몸을 피했다가, 1924년 9월 중순경에 다시 간도로 돌아 나와 수십 명의 무장한 부하를 거느리고 일본 관헌의 경비 상태를 탐정하는 한편 수 천원의 군자금를 모집하였다고 한다.[186)] 이를 통해 본다면 최문무는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군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1977년 최운산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시 ‘최문무’ 라는 이칭을 뒤늦게나마 찾아내 밝혔지만, 30여 년이 지난 2008년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는 취지하에 이명동인에게 포상을 주는 사단이 벌어졌다. 포상 신청서의 내용을 자료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운산이 도독부를 창설할 당시 참여하였고 이후 일선 군을 지휘하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지만, 모연대장으로서 군자금을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식적인 항일 독립군이 족벌로 운영되는 것을 꺼린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최운산은 대한북로독군부로 독립군이 통합되었을 당시에도 모연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그 뒤 1925년경 일본군에 피체되어

185) 機密 제28호 間島 및 接壤 露支領에 있어서 不逞鮮人團의 近況에 관한 件, 1924년 1월 25일.
186) ≪동아일보≫ 1925년 4월 10일자, 「간도 一幅을 횡행하던 독군부 모연대장」.

청진지방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운산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중국 당안자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둘째, 봉오동전투를 홍범도 중심에서 탈피하여 최진동이나 최운산의 관점에서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봉오동 전투를 총지휘했던 것은 대한북로독군부 부장이었던 최진동이었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최운산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최운산 집안에서 내려져 오는 그와 관한 많은 얘기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